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코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7 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12월 15일

【1】



인도네시아지부는 지난 11월 3일 제1회 「서울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 이역만리에서 모교와 모국에 대한 정을 나누었다. (관련기사 5면)

「서울大人」 和습의 정신 세계무대로 확산

관약추추

어느덧 97년도 저물고 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조국은 경제난국에 허덕이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에 해가 가는 줄조차 몰랐다. 정치와 경제가 온통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한 해. 그래도 동창회만은 대과없이 예년과 다른 성장을 하고 있어 든든하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동창회는 총 4억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등산대회와 야구대회 등

연례행사를 차질없이 치렀다. 특히 해외지부 활동을 장려하였고 많은 해외지부를 조직·인준하여 세계의 동창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각 주

한 해를 보내며

의 동창회지부를 결속한 재미동창회의 결성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 캐나다지부와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지부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흐뭇하다.

새해에는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정치가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이런 난국에 한 사람의 낙오없이 격량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동창회는 보다 강력한 상호유대활동을 벌여야 하겠다. 어려울 때, 슬플 때에 동문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곳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문은 없는지 자상한 손길을 뻗쳐야 하겠다.

새해에는 보다 나은 친목행사를 마련하고 동문 서로가 마음을 터 놓고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하겠다. 동문들과 가족들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조국의 경제회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哲)

97년을 보내면서

오늘의 경제난국

냉철한 판단으로 극복해 가자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회장



지나가는 1997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국외로부터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 동문들이 성공적으로 주축을 담당한 자랑스러운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한해가 23만 동문들 모두에게 우리가 맡은 역사적 사명의 중대함과, 인내와 단결의 가치를 재삼 인식하게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었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의 꾸준한 지도와 뜨거운 격려로 이곳 미주의 동문들도 점차 뭉치고 서로 돕는 데에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모교와 모국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미주에 산재해 있는 약 1만여 동문들의 과반수가 재미동창회의 한 지붕 아래 모였고, 머리를 맞대어 서로 돕고, 밖으로 봉사할 일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명단을 일목요연하게 웹사이트에 실어 지역에 관계없이 실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미주동문들을 위한 월간 회보도 회원간의 정보교환에 보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살고 닦은 전문지식들을 묶어 미주내의 동문들은 물론 이곳으로 전입하는 후배들을 돕기 위한 기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지적자산을 모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지식과 힘이 필요한 곳에 나누고, 모국의 세계화를 향한 걸음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명석한 두뇌에 못지 않은 뜨거운 가슴들을 모으는 이 운동에 모국의 동문들께서도 언제나 의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모국의 발전에 항상 선두에 선 역군들인 우리 모든 동문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쩌다보니 금년의 마지막달 동창회보에 글을 쓰야 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 한가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좀 어수선한 느낌이다. 님들은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이번달 동창회보가 한창 나돌아다닐때는 차기 대통령이 누구일지 대충 압축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祝當選 아무개로 결론이 나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어있을 것이다.

너나 없이 정치에 관심 많아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일국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자기 삼촌이나 형제가 출마한 것도 아닌데 흡사 자기일처럼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다. 특히 나의 경우는 기자생활 수십년을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보냈기 때문에 선거나 국회같은 데에는 관심을 안가질 수 없고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어디가서 한마디 쏘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가는데 이번처럼 너나

울산지부 張世一(63년 工大卒)회장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격변하는 범세계적 경제 경쟁환경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선진국가, 선진국민, 선진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은 국가간의 무한 무차별 경쟁시대로 돌입케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비용절감으로 더욱더 국가경쟁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제 97년 한 해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 주식의 폭락, 환율불안 등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 조정, 원가절감, 기술축적 및 개발, 고품질화 등을 이루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철한 판단으로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비판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나가는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마음, 한뜻을 모아 자랑스런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하는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랑스런 23만 서울대 동문들이 기수가 되어 큰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발전에 건강한 가치관으로 국민 의식개혁에 선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추적인 시기에 失機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당당한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합시다.



丘 月 煥
연합통신 상무

새 대통령의 올바른 진로

할 것 없이 앞을 다투어 정치평론을 하는 마당에는 주로 듣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보다는 머리

미술작품

朴 相 禧 作



「고향의 꿈」, 화강암, 마천석(발침), 60X 60X 45cm, 1996.

- | | |
|---------------------------------------|----------------------------|
| (작가 약력) | △91년 서울조각회전, 부천미술제, 매일아트전, |
| △86년 미대졸업 | △92년 패션과 조각의 만남, |
| △88년 동아미술대전 동아미술상, 중앙미술대전 특선, 존재와 상황전 | △93년 연출의 공간전 |
| △88~97년 개인전 3회 | △95년 오늘의 현실전 |
| △9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경인미술대전 최우수상 | △97년 현대공간회 30주년 기념전 |
| | △현재 미협, 현대공간회, 서울조각회 회원 |

주요목차

- | | |
|----------------|-----|
| 동문칼럼 | 8면 |
| 金環東 모교 사회학과 교수 | |
| 기획탐방 | 9면 |
| 동양매직 | |
| 동문을 찾아서 | 13면 |
| 趙庚穆·李茂根동문 | |
| 화제의 동문 | 23면 |
| 朴用根·李容秀동문 | |

多事多難했던 9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때, 동문 여러분의 健安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시는 연회비는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동창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성이 서울대인의 공동체 의식과 역량을 한데 모으고, 명예와 책무의 원천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로 선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기 쉽고 도를 지나쳐 과열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선거후유증이 남게 되고 당선자가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또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도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가슴보다 머리로 풀어가자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심심한 축하와 함께 금년에 우리 국민들이 겪은 것과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금년에 있었던 일들... 한보 사태, 김현철씨 구속, 대기업 연쇄부도(특히 기아사태) 그리고 급기야 IMF구제금융 등.

이런 일들은 몰라서 당한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것도 아닐 것이다. 이제 작별을 눈앞에 둔 1997년 한 해의 일들만 반추해보자 새 대통령의 진로를 설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인도네시아지부 「서울대인의 밤」 성황

鄭宗澤부회장 참석...동문의식 확인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環)는 지난 11월 3일 자카르타 시내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강당에서 제1회 「서울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1백7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鄭武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裴회장은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갖고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2세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金順熙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흔히 동문 결속력을 일컬어 연세대는 시멘트, 고려대는 철근, 서울대는 모래알로 비유하지만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보니 우리 동문의식이 다이아몬드로 거듭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成蒼元(67년 師大卒·한국국제학교장)동문의 축시 낭송 후 裴회장은 한국국제학교

건축기금으로 그동안 모금한 1천1백만 루피아(3천3백달러)를 成蒼元교장에게 전달했다.

金海權(77년 工大卒)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상대동문 부인 6명이 인도네시아 전통악기(Kolintang)로 상대 응원가와 동요(Burung Kaka Tua)를 연주했으며 南基正(72년 農大卒)동문의 딸이 첼로 독주를, 睦一振(71년 農大卒)동문 부인이 독창을, 자녀가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상대와 공대 동문 부부 합창단이 출연, 「별」 「아침이슬」 「오빠생각」 「정」 「낭랑 18세」 등을 부르며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동문자녀들로 구성된 SNU Junior 실내악 합주단이 동

요 메들리를 연주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鄭武雄부회장의 폐회사에 이어 참석한 동문가족들은 입을 모아 「고향의 봄」과 교가를 제창함으로써 이날 행사의 막을 내렸다.

「서울대인의 밤」행사는 각 단과대학별 행사를 중시해오던 관습에서 벗어나 전체 동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서울대인의 위상을 재인식하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창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同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서울대 트리비아

Q8. 모교 교가의 작사자와 작곡자는 누구일까요?

Q9. 모교의 校色은 무슨 색일까요?

A. 작사: 이병기 작곡: 현제명/청색(Cobalt Blue)

오스트리아지부 동문 60여명 활약

기금모아 「한국학과」 강좌 지원도

全豐一(66년 工大卒)회장



23만 동문에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송년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요즘도 가끔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태어나신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깊은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경쾌한 왈츠가 넘쳐 흐르는 음악의 도시로, 골목길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나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및 요한스트라우스의 음율을 연주하는 거리 악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국제연합 관계기구 및 정부간 기구가 뉴욕, 제네바에 이어 3번째로 많이 있는 곳으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총 15개 국제연합기구에 5천여명의 각 나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20명의 한국인 직원 가운데 5명의 동문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많은 동문의 진출이 요망됩니다.

이곳 오스트리아지부는 지난 93년 8월 22일 전임 崔主鎬회장 일행의 비엔나 방문을 계기로하여 초대 회장 李景鍵(63년 工大卒)동문의 노력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李相景(57년 文理大卒·비엔나대학 교수), 李承坤(60년 文理大卒·오스트리아대사)

동문 및 본인을 포함한 대사관, 상사 및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60여명의 동문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특히 음악을 전공하는 젊은 동문유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스트리아지부는 매년 4~5차례의 모임을 갖고 총동창회에서 보내주는 동창회보를 통해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 모임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의 한국학과 강좌에 대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엔나대학교에 한국학과를 개설하여 이끌어 가시던 李相景교수께서 곧 비엔나대학교를 정년 퇴임하시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학과 강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 기금을 확보, 기금 교수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총동창회의 해외사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며, 고국에 계신 동문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97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활동보고

다양한 행사로 화합과 참여도 제고에 주력

97년을 마감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의 올해 활동을 주요 내용별로 간략히 소개한다.

가정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겸 신입회원 환영회: 2월 18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①모교소식 및 장학증서 전달 ②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③신입회원 및 임원진 인사 ④신입회장 李義淑(60년卒·한국

▲전체이사회: 2월 13일, 5월 28일, 9월 25일 간호대 교수회의실 ①간호교육 90년 기념행사에 기별로 50만원씩 찬조하기로 결정

▲90주년 기념 행사 및 모교 방문 행사: 10월 8일~9일 간호대 강당 ①9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와 학장초청 만찬회 ②동문 출판물 전시회 ③崔愛玉(50년卒)동문 포함 7명에게 공로패 수여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천80만원 전달

③ 모교지원



상과대학동창회는 재학생에게 향상장학금을 전달했다.

25일 공대 신공학과 301동 ①엔지니어하우스 건립기금 출연 동문 감사패 수여 ②정년퇴임 교수 기념품 증정 ③결산안 심의 및 사업계획 예산 편성

농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 총회: 5월 10일 농생대 사색의 동산 ①權 澈(65년卒·경기농장 대표)부회장 감사패 및 李昇九(70년卒·모교 교수)前총무이사 공로패 전달 ②결산보고 및 예산안 확정 ③모교 은사님 사은품 전달

② 간행사업

▲모교와 공동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제7호, 제8호 발간

③ 기타사항

▲총무이사 인수인계: 5월 29일 신임 李政宰(73년卒·모교 교수)총무

미술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6월 13일 모교 박물관 강당 ①李信子(55년卒·괘러리 우덕 대표)회장 연임 ②신임 부회장에 李仁實(56년卒·숙명여대 교수), 尹亨圭(63년卒·고려서적 부사장)동문 및 감사에 姜燦均(63년卒·모교 교수)동문 선임 ③모교 「졸업미전」 개막식 참석

▲이사회: 10월 17일 야쿠르트빌딩 ①98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회원 명부 발간 논의 ②신임이사에 申璋湜(82년卒·수원대 교수)동문 포함 10여명 선임

법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5월 28일 힐튼호텔 ①「자랑스러운 법대인」桂昌業(40년卒·대양종합법률사무소)동문, 黃秉翼(59년卒·이대

교수)동문 수상 ②고회·회갑회기 동문 헌수연 및 축하패 증정 ③유공 동문 및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출연 동문에게 감사패 증정 ④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78명에게 6천8백95만원 전달

상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신년하례회겸 1차 운영위원회: 1월 21일 상의클럽 ①결산 및 97년 사업계획 보고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12월 30일 상의클럽 ①97년도 사업보고 및 98년도 사업계획 논의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항상 장학금 30명에게 3천만원 전달

수의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이사회: 1월 27일 성전 ①50주년 기념행사 및 장학재단 설립 추진 사항 보고

▲정기총회 및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행사: 10월 3일 수의대 강당 ①吳昌泳(53년卒·서울대 공원 연구원)동문 「자랑스러운



간호대학동창회는 신입회원에게 기념배지를 전달했다.

오에이시스 대표)동문 선출 및 李仁子(59년卒·건국대 교수)前회장 감사패 증정

② 장학사업

▲매년 2백40만원의 장학금을 1명에게 지원해왔으나 97년부터 각 학과(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학생 1명씩, 4명에게 나누어 한 학기동안 지급하기로 결정

간호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겸 신입회원 환영회: 3월 14일 간호대 강당 ①회장, 부회장연임 宋美順(74년卒·간호사)동문 등 일부 임원 선출 ②사업 및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

▲연구소 연구비 및 도서 출판비 지원: 1천2백만원 지원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격려 및 나이트게일 선서식 지원

▲졸업생 동창회장상 시상 및 재학생 수학여행 지원

▲간호교육 90주년 행사 1천3백만원 지원 및 모교 발전기금 5천2백만원 전달

공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이사회: 5월 21일 호암생활관 ①차기임원 추천 및 회칙개정 ②엔지니어하우스 건립기금 현황 보고 및 동창회 사업 논의

▲정기총회겸 등산대회: 5월



법과대학동창회는 「자랑스러운 법대인」 시상식을 가졌다.



사범대학동창회는 지난 6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범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제16회 등산대회 개최: 4월 27일 관악산 ①동문 1백여명 참가

▲정기총회: 6월 14일 교수회관 ①明鏡會(회장 李瓊蘭)에서 동창회 발전 기금 1천만원 출연

▲교직자 동문의 밤: 11월 8~9일 양평유스호스텔 ①동창회 현황보고 및 발전도모 논의

서울대인」수상 및 崔熙仁(56년卒), 徐鉉洙(57년卒) 정년퇴임 교수 기념품전달 ②수의과대학 장학재단 현판식 및 축하공연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1명에게 2백만원 전달

③ 모교지원

▲수의과대학 장학재단 설립: 尹志炳(58년卒·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대표)회장 1억원 출연 및 2억원을 목표로 모금운동 전개



약학대학동창회는 在日本동창회 「약창회」에 참석했다.

약학대학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 2월 25일 동창회관 관악홀
① 장학금 전달 및 박사학위 취득 축하 기념패 전달 ② 모교 입학 자녀 기념품 전달 ③ 감사보고 및 예산안 심의 ④ 沈應基(58년卒·국립보건원장)동문 포함 10명에게 동창회장상 수여
▲16회 「동창의 날」: 10월 12일 교수회관 잔디밭 ① 모교 방문 행사 및 친목 운동회 개최



의과대학동창회는 유공동문 및 우수지회를 표창했다.

음악대학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겸 신입회원 환영회: 3월 1일 힐튼호텔 ① 李南洙(53년卒 모교 명예교수)신임 회장 및 다수의 임원 선출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에게 2백89만4천원 전달

의과대학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3월 13일 신라호텔 ① 유공 동문 및 우수지회 표창 ② 회칙 개정 및 李吉女회장 재선임
▲동기회장회의: 6월 9일 신라호텔 ① 함춘회관 건립기금 모금방안 토의 ② 개원한 동문의 동창회 참여 방안 논의
▲지회장회의 겸 상임이사회: 9월 24일 신라호텔 ① 동창회 및 지회 활성화 방안 논의 ② 하반기 사업 논의
▲모교방문 행사: 10월 10일 의대 강당 ① 「자랑스런 서울의 대인상」 朴熙伯(57년卒·외과의원장)동문, 鄭求榮(57년卒·제퍼슨의대 교수)동문 수상



경영대학원동창회는 「교수·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연대학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10월 26일 농생대 수목원 ① 신임 동창회장 尹沃榮(61년 文理大卒·금성초등학교장)동문 선임
② 기타사항
▲전임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그룹 회장)회장 제11회 인촌상 수상

치과대학동창회

□ 주요행사

▲신년 하례회: 1월 15일 롯데호텔 ① 사업계획 및 모교 협조 방안 논의
▲정기총회: 5월 23일 치대 제1강의실 ① 金讚淑회장 연임, 신임 부회장 金京愛(61년卒·치과



대학원동창회는 張世憲동문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원장), 夫三煥(64년卒·치과원장), 黃義康(67년卒·치과원장)동문 선임 ② 원로회원에게 기념품 증정
▲이사회 및 평의원회: 5월 23일, 6월 17일, 7월 4일, 9월 26일 신라호텔 및 치대 회의실 ①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② 장기 해외 파견 교수 보조금 인상 ③ 金光男(65년卒·모교 치대학장)명예회장 공로메달 증정

▲이사회 및 평의원회: 5월 23일, 6월 17일, 7월 4일, 9월 26일 신라호텔 및 치대 회의실 ①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② 장기 해외 파견 교수 보조금 인상 ③ 金光男(65년卒·모교 치대학장)명예회장 공로메달 증정

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4월 17일 교수회관 원형홀 ① 결산 및 예산안 심의 통과 ② 장학사업 확정 ③ 張世憲(50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 포함 3명에게 공로패 전달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8명에게 1천1백67만1천원 전달

경영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4월 22일 롯데호텔 ① 金任植(70년卒·동의대 재단 이사장)동문 포함 5명에게 공로패, 張夢仁(67년卒·흥우(주) 사장)동문 포함 11명에게 감사패 전달
▲정기총회: 5월 30일 상의클럽 ① 孔大植(63년卒·대한설비공업대표)신임 회장 및 崔鍾泰(50년卒)前경영대 학장 고문으로 추대 ② 全永吉(68년卒·한국컴퓨터기기 회장)동문 등에게 감사패 전달

교육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4월 18일 교수회



대학원동창회는 張世憲동문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관 ① 동문 주소록 정비 ② 친목회 및 이사회 개최 논의 ③ 스승의 날 모교 은사 찾기 건의
② 간행사업
▲회원명부 발간

보건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이사회: 11월 20일 도일처 ① 동창회 주요 활동 및 예산 집행 내역 보고, 98년 예산심의 ② 총회 및 송년회 준비 사항 검토 ③ 임원 개선안 협의
▲회장단 회의: 11월 22일 도일처 ① 송년모임 세부사항 논의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 토의

▲총회 및 송년회: 12월 12일 모교 강당 ①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② 자랑스러운 동문 표창 ③ 축하 음악회 및 만찬

신문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2월 20일 프레스센터 ① 李濟薰회장 연임 및 부



행정대학원동창회는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를 실시했다.

회장에 金圭七(69년卒·산업기술정보원장), 金彥鎬(78년卒·한길사 대표)동문 선임 ② 언론정보학과 동창회와의 통합문제 논의
▲동문초청간담회: 2월 20일 프레스센터, 6월 12일 프라자호텔 ① 嚴廷植(71년卒·서강대 교수)동문 「현대철학과 정보사회」로 주제 발표 ② 鄭晉錫(76년 大學院卒·외대 교수)동문 「오늘의 한국언론」으로 주제 발표

▲초대 신문대학원장 金圭煥 박사 추모집 발간 추진 모임

행정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5월 9일, 5월 28일 롯데호텔 ① 사업 및 감사보고
▲임시이사회: 10월 22일, 11월 12일 롯데호텔 ① 특별회계 기금에서 일반회계 지원 승인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환경대학원동창회

□ 주요행사

▲정기총회: 4월 3일 세종문화회관 ① 결산보고 및 예산안 심의 ② 장학금 지급액 증액 ③ 전임 林岡源(70년 行大院卒·모교 교수)원장에게 공로패 전달
▲이사회: 10월 13일 대호 ① 총동창회 등산대회 참여 방안 논의



국가정책과정동창회는 동문초청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

□ 주요행사

▲이사회: 4월 24일 하얏트호텔 ① 결산 및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② 南惠祐(63년卒·前국무총리)동문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주제로 조찬 강연

▲정기총회: 5월 2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① 회칙개정 및 사업보고 ② 陳稔(63년 商大卒·기아그룹 회장)동문 「새 노동법과 노동정책 방향」 주제로 조찬 강연

▲조찬 강연회: 9월 30일 신라호텔, 11월 25일 하얏트호텔 ① 朴英哲(63년 商大卒·금융연구원장)동문 「최근의 금융 불안과 앞으로의 전망」 ② 魚允大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기업 대응」 주제로 강연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

□ 주요행사

▲학술세미나: 10월 14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金重雄(64년 法大卒·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동문 「구조전환기의 한국경제와 정책과제」 주제로 강연

□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20명에게 총 2천4백89만4천원 전달
③ 모교지원

▲엔지니어하우스 건립기금 지원: 崔在英(11기 동아엔지니어링 대표)동문 1천만원, 3기·8기·10기 각 1천만원씩 지원

▲공대 발전기금: 16기·17기 각 1천만원 지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

□ 주요행사

▲조찬 강연회: 2월 25일, 5월 22일, 10월 23일 하얏트호텔 ①

柳宗夏(59년 文理大卒·외무부장관)동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자세」 ② 姜慶植(61년 法大卒·前경제부총리)동문 「최근 경제 현황과 향후 경제 정책 방향」 ③ 李經植한국은행총재 「최근의 금융·경제 동향과 전망」 주제로 강연 (美)

두문칼럼

서울대인이 바라는 指導者像

— 서울대학교의 상징들을 중심으로 —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千年代를 여는 21세기가 열릴 때에 세계일류국가로서 新文明의 전개를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운을 맞을 것인가를 판가름할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의 길잡이를 여러 가지로 탐색할 수 있겠지만, 묘하게도 서울대학교의 몇가지 상징들이 묵시적으로 시사하는 내용들이 비단 서울대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그 은유적인 의미를 풀이해 본다.

학처럼 깨끗하고 고고한 면모를

첫째, 서울대학교의 校鳥가 鶴이다. 학은 우선 깨끗하고 고고한 인상이 일품이다. 높은 이상을 향해 그 길고 멋진 목을 들어 바라보면서 넓디 넓은 날개를 활짝 펴고 높푸른 하늘로 飛翔하는 모습은 그 간에 온갖 부정적인 舊時代 정치에 물들어 오염된 우리의 지도자들과는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이제야말로 좀 깨끗하고 품위있는 지도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학은 결코 홀로 있는 새가 아니라 무리져 서식하는 공동체 의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학들이 소나무 숲을 둘러싸고 한데 어우러져 있는 광경은 정말 한 폭의 그림이다.

느티나무의 너그러움 필요

둘째, 우리의 校木은 느티나무다. 시골마을 어귀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어김없이 맞이하는 느티나무는 드넓은 가지와 잎새들의 품 안에 누구나 거닐 수 있는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다.

불볕 더위에도 서늘한 그늘을 마련해주고, 그 그늘 아래 모여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는 寬容과 和合의 상징이 느티나무이다. 눈앞의 이해득실과 권력을 둘러싸고 이합집산으로 이루어진 패거리와 지역감정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던 과거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혁신의 두 날개를 달고 건전한 중산층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집단과 세력을 결집하는 대통합의 느티나무 지도자를 우리는 희구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正義 세워라

셋째, 「하늘이 무너져도 正義는 세우라」. 법학도의 슬로건이자 法諺이다. 혼탁과 무질서로 얼룩진 정치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원칙과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기준이 다름아닌 정의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당의 후보자가 정당한 경쟁에 승복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왜곡된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의에 투철한 새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사회가 결

코 일류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상징들이 시사하는 기준들이 우리가 바라는 새시대 지도자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고도 남는다. 다만 錦上添花로 욕심을 부려서 한 가지만 덧붙이기로 한다.

지도자는 경륜과 비전있어야

가령, 지도자란 역시 국가경영 능력과 사회발전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정계에 투신하여 오랜동안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거나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각고의 투쟁을 벌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라고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의 역사에서 충분히 관찰하였다.

이제는 교육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고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충실하게 제대로 경륜을 쌓고, 국가기관의 조직관리 경험도 착실하게 제대로 갖춘 인물을 정치지도자로 선택할 시대적인 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적절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全地球化(Globalization)의 거센 물결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이때, 제대로 된 식견과 안목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요컨대,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다. 서울대의 상징들이 시사하는 진리를 우리가 앞세울 때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빛이 환하게 빛날 것이다.



金璟東(모교 사회학과 교수)

“혼탁과 무질서로 얼룩진 정치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원칙과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기준이 정의다”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全地球化의 거센 물결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이때, 제대로 된 식견과 안목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경제를 살립시다

한국형 가스오븐레인지로 세계 시장 누벼

핵심부품 자체개발·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⑪ 동양매직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중견가전업체 동양매직을 운영하고 있는 李永端(65년 商大卒)동문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사원들에게 돌렸다.

동양매직이 남다른 품질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물론 우리 부엌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李동문은 밝혔다.

동양매직은 85년 동양시멘트 기계사업부로 출발, 미국의 매직셰프사와 기

술제휴를 맺고 가스오븐레인지 생산을 시작으로 가전사업에 진출하여 86년 수원 공장을 준공하고 국내 최초로 30인치 가스오븐레인지를 생산했다.

이후 가스오븐레인지에 한국형의 개념을 도입, 외국 가전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생산하는 기존업체의 행태를 지양하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현지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화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매직골드 600, 700」을 비롯하여 「black & white」, 「칼라」 그리고 최근 세계 최초로 우주항공 기술을 적용한 가스오븐레인지 「미사일 버너X」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 생산하여 수출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사업다각화와 가전시장에의 본격진출을 위해 동양매직은 세탁기 사업에 진출하여 기존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이었던 엉키지 않는 세탁봉 방식을 채택한 매직파워세탁기를 2년만에 개발하였다.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핵심부품의 자체개발에 성공, 외국제품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95년에 「신기술협동상」, 96년에 전국우수발명품전에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에는 그 동안 가스 기기에서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보일러 사업에 진출하여, 플라스틱 배관시스템 및 동파방지로 KT마크를 획득했다.

이외에도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캐비닛히터 등의 가스 기기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의 전자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환경관련 기기를 비롯해 소형 가전 전문브랜드인 「It's Magic」 등 총 80여 품목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지난 90년 李동문이 최고 사령탑을 맡으면서 조직구축과 더불어 가치경영과 정직성, 품질경영정책,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제품차별화 전략, 대고객 서비스 등으로 동양매직은 매출 2천억원(97년 목표치)의 성장을 이룩했다.

이중에서도 품질경영정책은 단지 원가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소비자 만족을 창출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업원 및 협력업체, 소비자, 투자자 모두를 고객으로 여기고 이들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92 전국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93 전국품질경영대회 VE부문 금상」, 「96, 97 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하여 92년 설립된 가전 연

구소를 중심으로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관련부품과 제품의 신뢰성 분석, 가전 기기 핵심 기술개발, 기술정보수집을 비롯하여, 디자인 부문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해왔다.

한편 고객만족을 위해 90년 동양매직부설 요리연구소를 설립, 93년 요리교실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전국 15곳에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1년 10월 제1회 매직셰프 오븐요리경영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동양매직 요리경영대회」를 개최, 올해로 7회를 맞이하여 주부를 중심으로한 가족단위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가전업계 진출 12년만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동양매직이 추구하는 미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회사,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이제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계인이 찾는 제품을 만들고,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21세기 세계적인 우량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美)



李永端사장이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동정

수상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
원장= 지난 11월 15일 인
도에서 간디
사상 고양에
힘쓴 외국인
에게 수여하
는 「잠나탈 바자지 국제상」을
수상함.

▲洪用植(55년) 工大卒·인하대
교수= 지난 11월 14일 모
교에서 개최
된 한국항공
우주학회 30
주년 기념 행
사 및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을 수상함.

▲柳熙春(55년) 商大卒·한일이
화 대표= 최근 제23회 전국품
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상을
수상함.

▲尹海重(55년) 音大卒·한국작
곡가협회장= 지난 12월 10일
문예진흥원에서 한국음악협
회가 제정한 「97년 한국음악상」
을 수상함.

▲崔滿麟(58년) 美大卒·국립현
대미술관장= 지난 11월
5일 문화체육
부에서 주관
하는 제8회
환경문화상
(조각 조형부문)을 수상함.

▲鄭溶文(59년) 工大卒·한솔 P-
CS 사장= 지난 11월 15일 한국
항공대에서 한국통신학회가 제
정한 「97년 정보통신 대상」을
수상함.

▲金炳翼(61년) 文理大卒·문학
과 지성사 대
표= 지난 11월 28일 대
산문화재단
이 제정한 제
5회 대산문학
상(평론부문)을 수상함.

▲元喆喜(62년) 法大卒·농협중
앙회 회장= 지난 11월 11
일 수원 농촌
진흥청에서
열린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을 받음.

▲李在淑(63년) 音大卒·모교 교
수= 지난 12월 10일 문
예진흥원
에서 한국음
악협회가 제
정한 「97년
한국음악상」
을 수상함.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 교
수= 지난 11월 11일 수원 농촌
진흥청에서 열린 제2회 「농업
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金正國(65년) 法大卒·현대중
공업 사장= 최근 제23회
전국품질경
영대회에서
품질경영대
상을 수상함.

▲李永瑞(65년) 商大卒·동양매
직 사장= 최
근 제23회 전
국품질경
영대회에서
금탑산업훈
장을 수상함.

▲李一曠(65년) 商大卒·대우건
설 대표= 최근 제23회 전국품
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상을

수상함.
▲朴淳永(65년) 保大院卒·경희
대 교수= 지난 11월 6일 「97새
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새마을
훈장 노력장」을 수상함.

▲梁在信(66년) 工大卒·대우자
동차 사장= 최근 제23회
전국품질경
영대회에서
금탑산업훈
장을 수상함.

▲孫郁(67년) 工大卒·삼성전
관 부사장= 최근 제23회 전국
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대
상을 수상함.

▲黃炳國(70년) 農大卒·고려대
교수= 지난 11월 19일 모
교 농업생명
과학대학 소
강당에서 화
농연학재단
으로부터 華農賞을 받음.

▲李倬柱(71년) 工大卒·한돌컴
프 대표= 지
난 11월 3일
우수 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에서 통
상산업부 장
관상을 수상함.

▲崔松鶴(71년) 工大卒·대우중
공업 전무= 지난 11월 3일 우
수 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에
서 철탄산업훈장을 수상함.

▲權奇洪(73년) 文理大卒·영남
대 교수= 지난 12월 1일 대
구방송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97 TBC 자랑스런 대경인상」대
상을 수상함.

▲鄭弼薰(79년) 齒大卒·모교 교
수= 최근 일본 교토에서 개최
된 제13차 학술대회에서 15개
분야로 나뉘어 시상하는 포스
터논문상 심사에서 2개분야 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함.

▲全用宇(82년) 音大卒·KBS교향
악단 악장= 지난 12월 10일 문
예진흥원에서 한국음악협회가
제정한 「97년 한국음악상」을
수상함.

▲張允聖(86년) 音大卒·경희대
교수= 지난 11월 13일 일본 도
쿄 수미다 트리포니홀에서 열
린 국제지휘콩쿠르에서 1위 없
는 2위에 입상함.

▲김정은(91년) 音大卒·피아니
스트=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
까지 칠레의 비나 델 마르에서
개최된 제24회 루이스 시겔 국
제음악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
함.

▲玄智然(97년) 美大卒·모교 대
학원 재학= 최근 동아 현
대 공예 부문
에서 「판도라
의 상자」라는
작품으로 대
상을 수상함.

▲李來煥(25기) AMP·현대건설
사장= 최근 한국능률협회 주

관 「97 건설혁신 전국대회」에서
한국건설인 대상 및 제23회 전
국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상을
수상함.

▲金英一(33기) AMP·금강개발
산업 사장= 지난 11월 15일 경
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호
텔외식경영학회의 「97호텔경영
대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沈貞燮(48년) 工大卒·모교 명
예교수= 지
난 10월 31일
수원대에서
열린 사단법
인 한국공업
화학회 9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장에
선출됨.

▲姜錫圭(50년) 工大卒·호서대
총장= 최근 세계도덕재무장
(MRA) 한국본부 신임 총재에
선임됨.

▲李珍雨(56년) 法大卒·前국회
사무총장= 지난 11월 10일 법
률신문 이사회에서 사장에 선
임됨.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
대 교수= 최근 「의식개혁 교
육연구 협의회」를 결성, 초대
회장에 취임함.

▲張得成(58년) 文理大卒= 지
난 11월 1일
자로 플랜 인
터내셔널 한
국위원회 사
무총장에 취
임함.

▲崔東鎭(58년) 文理大卒·駐영
국대사= 지난 11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IMO) 제20차 총회에서 한국인
으로서는 최초로 임기 2년의
총회의장에 선출됨.

▲金日建(59년) 文理大卒·駐알
제리대사= 지난 11월 15
일 외무부 특
2급 대사로
승진함.

▲金宣中(60년) 商大卒·진로그
룹 기획조정실장= 지난 11월
13일자로 진로그룹 부회장 겸
(주)진로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됨.

▲徐文源(61년) 工大卒·美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 교
수= 최근 동
양인으로
서 최초로 미국
섬유학회 회
장에 선임됨.

▲李晃遠(63년) 工大卒·진로쿠
어스맥주 사장= 지난 11월 13
일자로 (주)진로와 진로쿠어스
맥주 통합생산본부장에 선임
됨.

▲李正子(63년) 文理大卒·한국

시민단체 협
의회 사무총
장= 최근 선
거방송의 공
정성과 반론
보도 청구내
용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
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秋光永(63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지난 11월 15일 한국방
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에 선임됨.

▲陳稔(63년) 商大卒·前노동
부 장관= 최근 기아그룹 신임
회장에 선임됨.

▲崔靑林(63년) 商大卒·조선일
보 논설위원
실장·本報 論
說委員= 최
근 선거방송
의 공정성과
반론보도 청

구내용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韓弘栗(63년) 獸醫大卒·모교
교수= 최근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된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추대
됨.

▲朴元勳(64년) 工大卒·한국과
학기술연구원장= 최근 모교
에너지자원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
에 선출됨.

▲李鍾學(64년) 法大卒·한화중
합화학 사장= 지난 11월 11일
한화중합화학 총괄대표이사에
선임됨.

▲申明秀(64년) 商大卒·신동방
회장= 지난
11월 12일 내
외경제신문
과 코리아헤
럴드사 주주
총회에서 대
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文昌洙(64년) 行大院卒·지방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사장
= 지난 11월 13일 일본에서 열
린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아시
아·태평양지부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선출됨.

▲任孝幸(65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최근
건국대 박물
관에서 열린
한국선사고
고학회 정기
총회에서 임
기 2년의 제2대 회장에 선출됨.

▲李千洙(65년) 法大卒·순천향
대 총장= 지
난 11월 7일
서울 교대에
서 개최된 한
국교육법학
회 정기학술
대회에서 「교육법제 개혁의 현
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
연을 한데 이어, 총회에서 회장
에 선출됨.

(11면에 계속)

산 안토니오 국제피아노 콩쿠르

任美貞동문 1위 입상



시상식후 기념 촬영한 任美貞동문(가운데).

재미 피아니스트 任美貞
(88년 音大卒)동문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
국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에
서 열린 제6회 「산 안토니오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에 입상했다.
任동문은 부상으로 1만달
러의 상금을 받았으며 내년
시즌의 오케스트라 협연 및
독주회 등의 연주계약을 맺
었다. (雙)

(10면에 이어)

▲盧京來(65년 法大卒·변호사)=최근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반론보도 청구내용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

▲崔正浩(65년 商大卒·폴란드 센트룸대우 사장)=최근 우크라이나 자동차법인 오토자즈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申仲植(66년 文理大卒·시사저널 발행인)=최근 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에 선임됨.

▲許方彬(66년 文理大卒·재외동포재단 전문)=지난 11월 15일 외무관리관(1급)으로 승진함.

▲南宗鉉(67년 工大卒·고려대 교수)=지난 11월 21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임됨.

▲李忠九(67년 工大卒·현대자동차 부사장)=최근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본부장에 선임됨.

▲韓相俊(67년 工大卒·현대자동차 부사장)=최근 현대자동차 생산본부장에 선임됨.

▲余成國(67년 文理大卒·(주)대우 자동차수출부부장)=최근 폴란드 자동차판매법인 센트룸대우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姜光南(68년 文理大卒·과학기술처 기계전자연구조정관)=지난 11월 23일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에 임명됨.

▲金夏中(69년 文理大卒·외무부장관 특별보좌관)=지난 11월 15일 외무관리관(1급)으로 승진함.

▲李建世(69년 師大卒·MBC라디오 국장)=최근 열린 한국카톨릭 방송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4대 회장에 선출됨.

▲金正琪(69년 行大院卒·외교안보연구위원)=지난 11월 15일 외무부 특2급 대사로 승진함.

▲文相穆(70년 法大卒·(주)진로 사장)=지난 11월 13일자로 진로쿠어스맥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柳明桓(70년 法大卒·외무부 북미국장)=지난 11월 15일 외무관리관(1급)으로 승진함.

▲任晟準(71년 文理大卒·駐이집트대사)=지난 11월 15일 외무관리관(1급)으로 승진함.

▲徐京錫(71년 商大卒·LG투자신탁 대표)=지난 11월 24일자로 LG종합금융 대표이사에 선임됨.

▲成樂承(71년 行大院卒·前방송광고공사 사장)=지난 11월 24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에 선임됨.

▲李弼商(72년 工大卒·고려대 교수)=지난 11월 8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車美禮(72년 文理大卒·문화일보 북리뷰 부장)=지난 11월 17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에 선임됨.

▲崔革(72년 文理大卒·駐美대사관공사)=지난 11월 15일 외무관리관(1급)으로 승진함.

▲趙慶根(72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1월 17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운영위원장에 선임됨.

▲孫泰一(72년 商大卒·대우그룹 회장비서실 전문)=최근 (주)대우 자동차수출 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憲出(72년 商大卒)=지난 11월 24일자로 LG신용카드 대표이사에 선임됨.

▲洪薰基(73년 工大卒·진로그룹 기획조정실 사장)=지난 11월 13일자로 진로그룹 비서실장에 선임됨.

▲朴承武(74년 文理大卒·외무부 외교정보관리관)=지난 11월 21일자로 駐가나 대사에 임명됨.

▲金英媛(76년 人文大卒·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최근 국립공주박물관장에 취임함.

▲梁承穆(79년 社會大卒·모교교수)=최근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반론보도 청구내용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孫基洛(9기 AMP·LG정밀 대표이사)=지난 11월 24일자로 LG그룹 전략사업개발단 부회장으로 승진함.

▲鄭壯皓(14기 AMP·LG텔레콤 사장)=지난 11월 24일자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

행사·출간

▲白樂院(49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 副會長)=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독일에서 자유베를린대학 및 베를린기술대학과 교류협의를 가짐.

▲金相廈(49년 文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합리적인 환경규제제도 수립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曹祥鉉(51년 音大卒·서울뮤직클럽 회장)=슈베르트 탄생 2백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슈베르트의 기일인 11월 19일 문화일보홀에서 「겨울나그네」를 주제로 제20회 독창회를 가짐.

▲金烈圭(54년 文理大卒·인제대 교수)=목의 불가피한 충동성과 언어적 전략을 걸쭉한 입담으로 풀어놓은 「욕-그 카타르시스의 미학」을 펴냄.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26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일본도

멘상사의 모모세 타다시 서울지점장을 초청, 「한국에 28년간 주재하면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金哲洙(56년 法大卒·한국교육법학회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1월 7일 서울교육대 공학관 합동강의실에서 「교육법제 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기 학술발표대회를 가짐.

▲宋斗灝(56년 醫大卒·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총재·本會 副會長)=지난 27일 하얏트호텔에서 유엔 수

석차장 겸 지구환경위원회 의장인 모리스 스트롱 박사를 초청,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짐.

▲姜晉求(57년 工大卒·삼성복지재단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11월 4일 호암아트홀 로비에서 이상적인 어린이집 환경구성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함.

▲裴永姬(53년 文理大入·서울재즈아카데미 이사장)=12월 8일 종합예술기관을 강남에 이어 두번째로

대학로에 설립함.

▲黃哲益(57년 音大卒·건국대 교수)=지난 12월 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클홀에서 개최된 실내 오페라 「바람새의 나날」공연을 통해 일본어 대사에 한국음악의 혼을 담아 작곡한 작품을 선보임.

▲李漢雄(58년 商大卒·신협중앙회장·本會 副會長)=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연변에서 열린 신협활성화를 위한 연구토론회에서 참석함.

▲金微容(59년 文理大卒·한국관광연구원장)=지난 11월 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형 테마파크의 개발촉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鄭埴永(60년 美大卒·모교 교수)=최근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2m가 넘는 대작 「잊혀진 것들」시리즈로 40년만에 첫 개인전을 가짐.

▲朴煥實(60년 醫大卒·경기여고동창회장)=지난 11월 25일 경기여고 동창회관에서 긴급기 대표회의를 소집, 「절약생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짐.

▲成炳旭(61년 文理大卒·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지난 11월 5, 6일에 걸쳐 제주도에 「대통령선거보도와 논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鄭鎮泰(61년 文理大卒·한려친선협회장)=지난 11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선임 러시아대사를 초청,

(12면에 계속)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자문위

동문 7명 참여

지난 11월 19일 경제난국의 조기극복과 금융시장의 안정 등 경제운영 전반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대통령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는 朴晟容(50년 文理大入·本會 副會長)금융개혁위원장 등 재계, 학계 인사 11명이 참여하며 동문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

다.
△朴晟容 △朴炳潤(63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 부사장
△朴英哲(63년 商大卒)금융연구원장 △崔靑林(63년 商大卒·本報 論說委員)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 △車東世(65년 商大卒)KDI원장 △尹炳哲(AIP 3기)하나은행 회장.

하노이대학 명예박사학위 받아

외국어대 재단 朴昇濬전무



국립하노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朴昇濬동문(右).

최근 베트남 국립하노이대학에서 한·베트남 양국간의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朴昇濬(60년 工大卒·외국어대 재단 전무·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동문(사진)이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朴동문은 8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과 교류해왔으며, 지

난 90년 외국어대학이 하노이대학 및 호치민대학과 자매결연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기자재의 지원 등 교육교류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를 계기로 호치민대학과 하노이대학에는 한국어강좌와 한국학과의 개설됐다. (美)

(11면에 이어)

「러시아의 현재와 향후 한·러 관계」를 주제로 리셉션을 가짐.

▲方惠子(61년 美大卒·서양화가)=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한지를 주재료로 동양적 정신성이 물씬 풍기는 「우주의 빛」연작을 전시함.

▲尹世榮(61년 法大卒·SBS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1월 13일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제 6회 SBS 교육대상 시상식을 개최, 대상 1명을 비롯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부문별 수상자 6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함.

▲金彩圭(61년 音大卒·재미 피아니스트)=지난 1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향과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G장조」를 협연함.

▲金彩圭(61년 音大卒·재미 피아니스트)=지난 1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향과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G장조」를 협연함.

▲沈花子(63년 美大卒·한국화가)=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갤러리에서 「정신아리랑」등의 꿈틀거리는 물결과 산맥의 운동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7번째 개인전을 가짐.

▲朴英哲(63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11월 11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97년의 분석과 98년의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柳莊熙(63년 商大卒·이화여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지난 11월 19일 이화여대에서 「세계정치와 경제의 최근 현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金賢哲(63년 法大卒·前대한법률공단 이사장)=최근 변호

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301호, 전화: 588-9966)

▲申基鎭(64년 行大院卒·한국국제협력단 총재)=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 새미갤러리에서 봉사활동과 현지주민들의 삶을 담은 「지구촌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진전을 가짐.

▲明浩根(65년 法大卒·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만해사상 실천선양회 회장)=지난 11월 8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백담사에서 만해기념관 개관을 기념하는 「만해사상강연회」를 가짐.

▲申秀壽(66년 美大卒·서양화가)=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청담동 원화랑에서 30여점의 작품을 출품, 10번째 개인전을 가짐.

▲姜美子(66년 音大卒·경남대학교 교수)=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화은행 개설 1주년기념 「한화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 헝가리 세계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함.

▲崔日燮(67년 文理大卒·모교 교수·한국자원봉사포럼 학회장)=지난달 26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자원봉사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함.

▲金春玉(68년 美大卒·고려대 교수)=지난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상」의 기획초대전에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 전시회를 가짐.

▲陳英善(68년 美大卒·고려대 교수)=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청담동 유화화랑에서 프레스코 회화기법의 작품전을 가짐.

▲李愛珠(69년 師大卒·모교 교수·한영숙승무보존회장)=지난 11월 2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한영숙 선생 8주기 추모 공연을 펼침.

▲尹美容(69년 音大卒·국립국악고등학교장)=지난 11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무용페스티벌」에 국악고생들과 참석, 한국무용을 공연함.

▲俞煥(70년 文理大卒·강서구청장)=지난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열정과 고민을 담은 「청

장님 요즘도 데모하십니까?」출판기념회를 가짐.

▲李喜根(70년 工大卒·모교 교수·한국암반학회 회장)=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KOEX에서 제1회 아시아지역 국제암반공학 학술회의를 개최함.

▲鄭世鉉(71년 文理大卒·민족통일연구원장)=지난 11월 8일 대한적십자사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金廷鉉(72년 工大卒·필라델피아 벨연구소 연구원)=최근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이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소재로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소설을 펴냄.

▲朴漢濟(73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구수한 글솜씨로 知千命의 나이를 맞아 진솔한 삶의 삽화가 담긴 수필집 「인생」(한길사)를 펴냄.

▲裴圭漢(74년 文理大卒·국민대 교수·전국대학학생처장협의회 회장)=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 프린스호텔에서 「한총련 이후,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朴陽義(76년 醫大卒·경찰병원 방사선과)=최근 근골격계 분야의 영상진단을 질병별, 관절별로 분류 구

성한 슬라이드 교재(슬라이드 필름·설명서·카세트테이프)를 펴냄.

▲李珉柱(80년 美大卒·상명대 강사)=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Art Expo 1997」심사에 선택되어 「Source of Silence」를 출품 전시함.

▲丁海任(80년 音大卒·경북대 교수)=지난 12월 2일 경북대 예술대학 콘서트홀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가짐.

▲鄭聖惠(82년 家政大卒·인하대 교수)=지난 11월 26일 호암아트홀에서 무용과 소프라노

朴美惠(83년 音大卒)동문의 성악을 담은 패션퍼포먼스를 개최, 새로운 의상을 선보임.

▲金仁秀(82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11월 14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로망스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독창회를 가짐.

▲鄭恩美(85년 美大卒)=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 이콘에서 Secret Garden이라는 테마로 작품전을 가짐.

(정리=李美連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왕용 군(82년 經營大卒)·장운하 양=12월 16일 13시.

*주현택 군(97년 工大卒)·이정화 양=12월 20일 11시.

*최병춘 군(94년 農生大卒)·진정아 양=12월 20일 14시.

*황택환 군(88년 人文大卒)·이영선 양=12월 21일 11시.

*민승기 군(93년 工大卒)·권현주 양=12월 21일 12시 30분.

*이상일 군(88년 法大卒)·이영자 양=12월 21일 15시 30분.

*김현철 군(87년 經營大卒)·안소현 양=12월 26일 13시.

*강태천 군(91년 獸醫大卒)·이정미 양=12월 27일 12시 30분.

*김종영 군(89년 法大卒)·한혜정 양=12월 27일 14시.

*이재빈 군(96년 工大卒)·김순심 양=12월 28일 12시 30분.

*이용석 군(91년 社會大卒)·박경희 양=1월 8일 12시.

*신동일 군(88년 音大卒)·신은경 양=1월 10일 11시.

*김태완 군(93년 獸醫大卒)·박경미 양=1월 10일 14시.

*박진우 군(97년 醫大卒)·정보선 양=1월 10일 15시 30분.

-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제236호) 7면 등산대회 협찬금(20만원) 출연 동문 명단중 「金宗哲(66년 齒大卒)동문」을 「金鍾錫(60년 法大卒·쌍방울개발 상임고문)동문」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趙王夏(75년 法大卒·동양종합금융 사장)동문이 협찬금을 내주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루브르박물관서 작품전 가져

李大源·李鍾祥동문



李大源



李鍾祥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있는 카루젤 샤를 5세홀에서李大源(45년 法大卒·예술원 회원), 李鍾祥(63년 美大卒·모교 교수)동문 등 한국현대

미술가 3명이 지난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다.

李大源동문은 1백호 크기의 4계절 연작시리즈를 출품했으며 李鍾祥동문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의 강화도 침략을 담은 벽화를 그렸다.

카루젤 샤를 5세홀에서 현대미술전시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랑스 외무성과 문화성이 공동주최하고 프랑스 최대 국영기업인 톰슨의 CSF그룹이 후원하는 등 프랑스 정·재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뤄졌다. 한국측에서는 (주)가나아트갤러리에서 전시를 주관하고 삼성그룹과 대한항공이 후원했다.

「韓·日 현대 공예의 지평전」 개최

갤러리 우덕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우덕(대표 李信子·미대동창회장)에서 도자·금속·섬유 3개 부문에 걸쳐 확고한 자기세계를 구축해온 한국과 일본작가의 현대 공예전이 열렸다.

이날 작품전에는 白泰昊(51년 美大卒), 李信子(55년 美大卒·덕성여대 명예교수), 權純亨(55년 美大卒·예술원

회원), 金益寧(57년 工大卒), 朴淑熙(62년 美大卒·숙명여대 교수),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교수), 姜燦均(63년 美大卒·모교 교수), 林茂根(65년 美大卒·서울여대 교수), 鄭大有(67년 美大卒·성신여대 교수)동문 등 한국작가 16명과 일본작가 10명이 참여했다.

(雙)



각자 취미에 맞는 채널 고르세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趙庚穆회장

96년 7월 제2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케이블TV의 유용성 홍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趙庚穆(61년 工大卒)동문을 만나 협회의 주요 사업과 당면과제 등을 들어보았다.

－협회의 구성은.

『우리나라 케이블TV사업은 미국, 일본 등 외국과는 달리 3분야 사업자 즉 프로그램 공급사(PP), 케이블TV방송국(SO), 전송망 사업자(NO)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PP는 각기 뉴스, 교육, 음악, 영화, 다큐멘터리, 여성, 홈쇼핑, 바둑 등 29개의 전문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전국의 케이블TV방송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SO는 전국에 77개 방송국으로 구성, PP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케이블TV가입자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NO는 이와같은 다채널 전문방송이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케이블TV시청자에게까지 최상의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포설하여 방송을 전송해 주

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전송망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까지 케이블TV방송이 나가지 않던 전국 24개 지방도시, 농어촌 지역에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개의 유·무선 사업자가 추가로 전송망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업무는.

『케이블TV의 발전과 보급 촉진 및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는 전무이사 겸 사무총장 아래 기획관리국, 사업지원국, 대외협력국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업관리국에서는 법령, 제도의 연구, 예산·기금 운영 및 총무 등 협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지원국에서는 케이블TV사업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SO, PP, NO의 각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케이블TV사업을 조기 발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외협력국에서는 케이블TV보급 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활동 및 대외적인 협력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당면과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케이블TV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입니다. 95년 3월 1일 케이블TV가 본 방송을 개시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 11월 24일 현재 케이블TV 총 시청가구는 2백48만8천3백28가구로서 미국·캐나다의 보급률보다도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급 추세로 가면 금년 말까지는 시청가구가 2백50만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케이블TV전국 방송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98년 말까지 3백50만, 99년 말까지는 4백50만, 2천년 말에는 6백만 시청가구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질적인 면에서 케이블TV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한차원 높여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회에서는 내년부터 PP들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조성한 영상산업진흥기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등 정책·제도적인 육성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



입니다.

셋째, 제도와 기술면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방송 환경과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케이블TV망이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기준을 보완하는 일이 당면과제입니다』

－2차 케이블TV 방송국 개국 준비는.

『지난 5월말 2차로 허가를 받은 24개 SO는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개국한다는 목표를 갖고 방송국사를 확보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하며, NO와 전송망 계약을 하는 등 방송 개시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24개 SO중 성남방송과 부천 드림씨티방송이 제일 먼저 11월에 시험방송을 개시했으며, 안양방송, 한빛방송(광명

권) 및 울산방송은 12월중에 시험 방송을, 부천 드림씨티방송은 12월 1일부터 본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 SO들은 내년 1~4월까지 개국 예정인 SO가 16개사, 5~6월중에 개국 예정인 SO가 3개사로 내년 6월말까지는 2차 SO가 방송을 모두 시작하리라 봅니다』

－23만 동문에게 한말씀.

『케이블TV는 다른 기존 매체와는 달리 다채널 전문방송이면서 인터넷, 전화 등 양방향 정보통신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입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케이블TV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각자의 취미에 맞는 전문방송을 선택,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變)

인기 직종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李茂根원장

지난 10월 18일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총괄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출범했다. 초대 원장에 취임한 李茂根(64년 農大卒·모교 농생대 교수)동문을 만나 직능원의 기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취임소감은.

『능력도 부족한 제가 초대 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민 각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평생동안 배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국제 경쟁에도 이겨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능원의 주요 기능은.

『직능원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주된 기능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계획을 연구하고, 산업인력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평가하고,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급, 관리하며, 각종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21세기 국가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직업능력인증제도」는.

『앞으로의 산업사회는 학력보다는 능력과 자격이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아느냐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직업능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

－취업난과 인력난의 특별한 해소 방안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망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은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진학률이 계속된다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인력난은 점점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취업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중에는 국민들이 직업에 관한 귀천의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평생동안 일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함



께 총체적으로 노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직능원은 국가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개발하고, 직업교육훈련 현장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며, 이런 정책연구개발이나 문제해결 방안들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관련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학들에게 한말씀.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직업의 생성과 소멸의 변화 과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동안 2만2천여개의 직종중에 약 50%의 직종이 바뀔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기 직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고 자신의 삶에 보람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變)

새 경제부총리에 林昌烈동문

통산장관 鄭海洙·경제수석 金永燮동문

중기청장 秋俊錫·관세청장 嚴洛鎔동문

金泳三(51년 文理大卒)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林昌烈(66년 商大卒)통상산업부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에 鄭海洙(68년 法大卒)중소기업청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 金永燮(70년 商大卒)관세청장을 임명하는 등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장에 秋俊錫(71년 商大卒)통산부 차관보, 관세청장에 嚴洛鎔(71년 法大卒)재경원 제2차관보를 각각



林昌烈경제부총리

임명했다.

자연과학대학

신임 회장에 尹沃榮동문 선출

自然科學大學同窓會(회장 李龍兌)는 지난 10월 26일 농생대 수목원에서 열린 총동창회 주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가 끝난후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사업보고 및 98년 예산안 심의 등이 논의됐다. 또한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해온 李龍兌회장 후임에 尹沃榮(61년 卒·금성초등학교장)동문(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미술대학

尹亨圭부회장 등 새임원 선임

美術大學同窓會(회장 李信子)는 지난 10월 17일 한국야쿠르트빌딩에서 제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李信子회장, 李仁實부회장 등의 임원과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金春洙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98년 동창회보를 1월과 8월에 발간하기로 의결했으며,

모임예정

상과대학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12월 30일 상의클럽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으로 「상대인의 밤」을 개최한다. (연락처: 753-2277)

간호대학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98년도 신년 하례회를 1월 5일 앰버서드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연락처: 742-7324)

최고산업전략과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崔在英)는 98년 1월 9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신년 교례회 및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연락처: 880-7021)

행정대학원

특별 기금으로 명부 제작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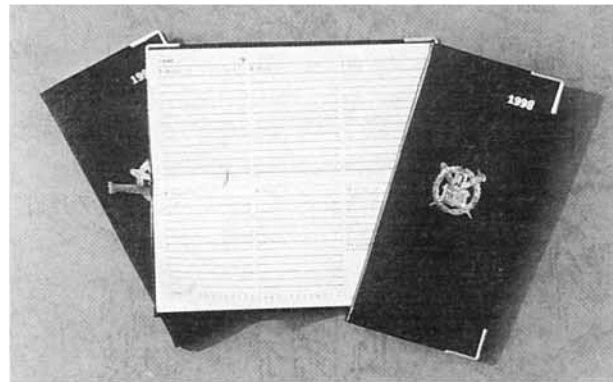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지난 11월 12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명부 제작비 및 관리비 부족과 관련하여 동창회 특별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승인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회 및 각종 모임에 장기간 불참했거나 회비를 미납한 동문에 대하여 동창회 명부 및 각종 공문, 안내 통신문 등을 발송하지 않기로 한 안건은 2000년 1월 1일 이후로 보류했다. 또한 장학사업등의 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美>

「포켓용 DIARY」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 지난 11월 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1차로 이미 발송해 드렸습니다.

11월 2일부터 97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 여러분께는 회비 납부가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셨는데 아직 「포켓용 DIARY」를 받아보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사무처

사범대학

「교직자 동문의 밤」행사 마쳐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峻)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1박2일) 양평유스호스텔 수련원에서 「교직자 동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일전 축구 경기 관계로 1주일 늦게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동안의 동창회 활동보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의대 11회

함춘회관 기금 1천만원 출연



「자랑스러운 의대인」상을 수상한 鄭求榮동문(右).

의대11동기회(회장 朴熙伯)는 최근 졸업 40주년을 맞아 의대 대강당에서 「동창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의대동창회 李吉女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朴희장과 鄭求榮(토머스 제퍼슨의대 교수)동문이 「자랑

스러운 의대인」상을 수상했다. 또한 同會 및 鄭求榮동문이 함춘회관 건립기금으로 각각 1천만원과 미화 5천달러를 李吉女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동문들을 위해 민속국악, 무용 등의 여흥 프로그램을 선보여 분위기가 고조됐다.

만 평

李元馥



비전있는 지도자를...
VERITAS LUX MEA



치대 21회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치대21동기회(회장 金華奎)는 지난 2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백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趙雄(조웅치과의원장)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행사를 기념하는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은사님의 가르침 덕분이며, 이번 30주년 모임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

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金회장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 鄭寬禧동문과 高在丞동문이 각각 1천만원, 韓秀夫동문이 금일봉을 치과대학 金光男학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날 姜銓英동문에게 동기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선사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30주년 기념회보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행사 다음 날인 22일에는 2박 3일 동안 설악산 관광을 떠나 친목과 우의를 도모했다.

농대 48회

「건강·인화」로 27년간 모임 가져



농대 48년 입학동기인 西湖會(회장 鄭雲朝)는 최근 을지로 안동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수원에 있는 西湖를 회상하여 西湖會라 이름짓고 70년 11월 12일 첫 모임을 가진 것이 벌써 27년의 역사를 가진 모임이 됐다.

현재 15명의 회원이 매일 만나 서로 아호를 부르며 우정을 나누고 있는 同會의 목표는 첫째 건강, 둘째 인화인데 회원들은 「세월이 갈수록 회원간의 정은 깊어지나 건강에는 자신이 없어진다」며 아쉬워했다.



치대 11회

졸업 40주년 여행

치대11동기회(회장 林采均)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

다.

시내 명승지와 마라도 등을 돌아보며 우의를 다진 동문들은 앞으로 보다 알찬 행사를 펼쳐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친목을 다지자고 결의했다.

사회교육과

鄭正燾회장 선출

사회교육과동창회(회장 文尙鎬)는 지난 11월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97년도 정기총회 및 「사회학과 50년사」 발간 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李榮基명예교수를 비롯해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모교 孫鳳鎬학과의 축사 등 50년사 발간(발간위원장 鄭正燾)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鄭正燾(61년卒·충북대 교수)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曹道根(61년卒·인하대 교수)동문과 羅淸運(64년卒·녹천중 교장)동문, 감사에 徐順鍾(62년卒·공인회계사)동문을 선임했다.

상대 10회

張基郁회장 선임

상대10동기회(회장 金方淵)는 최근 롯데호텔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고인이 된 崔林春동문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임원진을 새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에 張基郁(삼왕주철 사장)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회장에 全泳周(세프라인금속 상임감사), 姜豪錫(부일상호신용금고 회장), 鄭泰植(능곡교역 사장), 李乃均(삼화도자기 사장·冠岳會 理事), 朴鍾模(제일인쇄 고문)동문, 감사에 李澤燮(우빈산업 대표)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전자공학과

사진집 발간 자축

전자공학과동창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24일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9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同會 창립 50주년 기념사진집 발간을 자축하고, 기별참석자 인사 및 同會 연혁 슬라이드 관람 등이 있었다.

미대 58회

12월 15일 작품전

미대58동기회(회장 金挺鉉)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15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총 24명이 1인당 2점씩을 출품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와 동양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信)

모교소식

내년부터 2개 학위 취득 가능

타단대생 法·音·醫大는 이수 못해

모교는 입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경우 같은 단과대 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의 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는 「대학별 복수전공 시행지침」을 확정,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학년인 96학년도 신입생은 같은 단과대 내 학과에서만 복수전공이 허용되며, 97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다른 단과대의 전공도 선택할 수 있다.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대, 농생대, 미대, 생활과학대는 학과와 단과대의 제한 없이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법대, 음대, 의대는 소속 학생들이 다른 단과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나 다른 단과대 학생이 법학이나 의학 등을 이수하지는 못하게 했다. 사범대와 약대는 단과대 내와 다른 단과대로의 복수전공만 가능하다. 간호대, 수의대, 치대는 전공특성상 복수전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과대학

제6회 「훌륭한 공대교수」 시상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11월 14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6회 훌륭한 교수상」수상자로 교육부문에 李賢九(62년 工大卒·화학공학)교수, 학술부문에 盧承卓(66년 工大卒·기계공학)교수, 기술부문에 張承弼(65년 工大卒·지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李교수는 공정제어 분야에서 20여명의 박사를 길러낸 업적

을, 盧교수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신냉매 개발 및 특성 연구의 공로를, 張교수는 「케이블로 지지된長大교량의 설계기술 개발」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다.

「훌륭한 공대 교수상」은 92년 7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공대 15회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정됐다.



李賢九



盧承卓



張承弼



삼성그룹 「암 정복 연구동」 기증 3백억원 들여 99년 7월 완공

모교는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연건캠퍼스내에 지상 10층, 지하 1층, 연건평 4천4백평 규모의 「암정복연구동」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7일 모교 鮮于仲皓총장을 비롯해 李純炯의대학장, 李迎雨병원장, 朴在甲암연구소장, 李吉女의과대학동창회장, 崔 洸보건의복지부장관, 李勇源교육부 차관, 李健熙삼성그룹회장, 金憲出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鮮于총장은 식사를 통해 「앞으로 국내 암정복 목표달성에 선구적 역할은 물론 암기초의 학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 洸보건의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매년 5만여명이 암으로 사망,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이 연구동의 건립으로 암치료가 많은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이 건축비 2백50억원, 부대비용 50억원 등 총 공

사비 3백억원을 지원, 오는 99년 7월 완공 예정인 이 연구동은 암연구센터와 대국민 암교육을 담당하는 암교육센터,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 정보통신센터, 연구지원부서 등을 갖추게 된다.

어학연구소

「영어능력시험」 개발

모교 어학연구소(소장 金明烈)는 지난 11월 17일 토익과 토플 등 기존 영어능력평가시험의 단점을 보완한 「서울대 영어능력검정시험 (SNU-CREP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어학연구소 측정부와 국내외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6년여에 걸쳐 공동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영어능력시험이 지엽적인 독해능력이나 암기위주의 문법지식 측정에 그치는 점을 보완, 자연스럽게 체득된 언어사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시험은 어휘, 문법 각 50문항, 독해 40문항, 청취 60문항(1천점 만점)으로 구성돼 모교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첫 공개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고교 추천입학제

12월 20일 합격 발표

모교가 올 입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고교장 추천입학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정원 3백85명에 모두 1천8백91명이 지원해 평균 4.9대 1의 전체 경쟁률을 보였으며 법대는 5명 모집에 1백6명이 지원, 21.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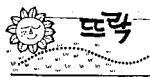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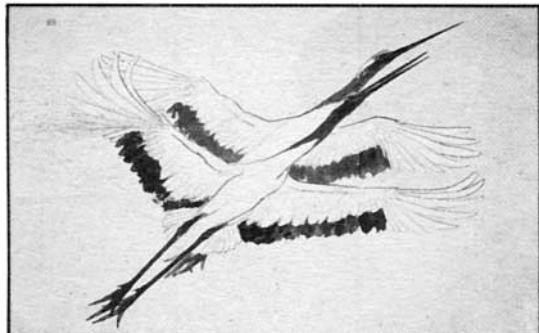
모교는 지난 11월 20일 1차 사정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지했으며 25일 면접·지필고사(논술형)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變)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대학살롱」중에서—

관악의 새식구, 농생대의 자리잡기

◇관악의 새식구가 될 농생대의 보금자리가 국수봉 자리로 확정되었다는데, 녹지 공간을 훼손한다는 여러 교수님들의 반대로 길고 긴 논쟁을 겪은 끝에야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물론 심사숙고 끝의 결정이었으나 이미 포화상태인 관악에 그나마 녹지 공간마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가슴아픈 일. 다만 쌀롱자 바라건대, 농생대가 지니고 있는 「푸른 정신」을 고스란히 관악으로 가져와 삭막한 「종합캠퍼스」 서울대가 한층 밝아지기를...



디자인 살아야 경쟁력이 산다

羅成淑(75년 美大卒)여류시각디자인협회장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Uruguay를 다녀 왔다. 목적은 2000년 ICOGRADA 한국 유치. ICOGRADA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로 디자인의 올림픽이다.

투표날까지 속으로는 긴장되었지만 겉으로는 시각디자인 전공답게 한복 차려입고 열심히 웃는 덕에 성공했다.

정부지원·인식변화 필요

「문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디자인이 살아야 경쟁력이 산다」라는 말은 작금의 시대가 얼마나 디자인 시대인가를 대변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Italy의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

화를 주고 유행을 이끌어 가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요즈음 그 누가 청바지가 떨어져서 못 입는가? 유행이 바뀌어서 못 입지... 그러니 얼마나 좋은가? 자꾸 디자인만 바뀌려면 새로운 수요층이 생기고 흑자를 만들어 가는데... 신문광고도 같은 광고를 100번 이상 내 보낼 수 없으니 디자인분야는 할 일도 많다. 할 일이 많으니 문제도 많다.

Mexico, Slovakia, Africa보다도 더 늦게 세계대회를 유치할 만큼 세계화에 늦었고 광화문 프레스센터 정도는 고사하고 디자인센터 하나 없이 정부 부처에도 통상산업부에 과단위로 하나 있다. 아마 곧 나고야 디자인센터보다 멋진 디자인센터가 건립되고 산업디자인과가 아닌 산업디자인국으로 승격될 날이 오

리라.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내적인 우리 감각의 성숙도이다. 「백의 민족」 이름은 좋지만 색채에 대한 무감각을 강요했고 「재주가 많으면 가난하다」는 예능과 조형에 대한 무시가 내재해 있다.

세련된 색채감각 키우자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색채, 패턴, 개성, 유머가 난무하는데 우리는 무색채, 무감각에 길들여져 왔다. 우리 남편만 해도 「신발하나 주세요」한다. 나는 손수건 한 장 사는 데도 고르고 고르는 데.

귀찮고 신경쓰이지만 우리는 좋은 디

자인을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우리의 노력에 의해 표출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체제 붕괴 후, 우리보다 생필품이 훨씬 열악한 데도 뛰어난 거리의 포스터나 의상의 패턴을 보며 「감각의 세계는 진정 오랜 투자가 필요하구나」했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도 재주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고 다양함보다는 외골수가 많다. 그러나 각 가정과 사회의 리더인 우리가 먼저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 디자인 시대에 어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다양한 색채와 세련된 감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합시다.

진정한 사랑·프라이드·애교심

鄭有景(92년 家政大卒)방송작가



『서울대학교 동창회보에 글을 실기로 했는데 도대체 뭘 써야할지 모르겠어』라고 하소연을 늘어놨더니 친구가 묻는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라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는거니?』(친구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대단한 사람들이겠구나. 회사 간부나 교수님, 혹은 장관님들?』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라고 말은 했지만 친구 목소리는 이내 심드렁해진다. 『난 서울대학교동창회는 어쩐지 싫다. 애...』 친구는 슬쩍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려버린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서로 안부도 전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정다운 소식지야』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고 곧 사정이 생겨 친구와 통화를 마쳤다.

출신교 명성에 집착말아야

나는 안다. 친구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회사 간부나 장관님이나 혹은 교수님이 아니다. 그 애는 「서울대학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

다 이맘 때면 수능시험이라는 화제가 신문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수험생 학부모의 간절한 기도, 합격여, 쌍둥이 서울대 수석합격자 같은 뉴스들이 어찌하면 매해 그리도 똑같이 신문을 장식하는지 모르겠다. 그런가하면 한견에는 어김없이 나쁜 성적을 비판한 자살기사가 실린다.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에 대해 물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라고 물을 때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확실히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부모님의 강권 덕에 억지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4년 내내 학과에 대해 고민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점수에 맞는 다른 대학교로 가서 문학을 전공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졸업한 학과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유난히 이름에 집착하는 증후군... 이런 경향이야말로 정말 큰 문

제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하고 쳐주는(!) 그런 사고방식 말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당연하고 또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걸 가슴에 커다랗게 붙이고 다니는 것은 참 우스꽝스런 일이다. 남이 가족 옷을 입으니 나도 입어야 하고, 남이 어떤 브랜드의 신을 신으니 나도 그걸 사 신어야 하고 남들이 어떤 책을 읽는다고 나라도 그걸 읽어야 한다. 품질이 중요하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얻는 것이 중요해지고 마는 것이다. 애써 얻은 브랜드이므로 내가 가진 것을 뽐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우리 브랜드가 아니니까 너는 저리 가」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모두가 이런 식이니 TK나 KS나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남이 가」하는 표현도 당당해지고 마는 것이다.

브랜드보다 품질이 중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맞은편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저는 최고표 고장 최고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표 대학교를 졸업하고 최고표 기업에 입사하여 현재 연봉 4천5백만원을 받고 있지요. 2000cc 최고표 승용차를 몰고 있는데 곧 3000cc 최최고표 승용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저는 팬티에서 양말까지 최고표 브랜드를 씁니다. 저는 최고표 브랜드 팬티를 입는 사람과 만나면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저는 제가 가진 것을 고수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참 멋있지요?』 이런 남자와 혹시 미국 가는 비행기 옆자리라도 앉게 된다면? 물론 나는 미국에 가본 일은 없지만, 차라리 태평양에 떨어지고 말겠다.

가슴에 줄줄이 붙인 이 「브랜드」라는 배지를 떼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프라이드가, 진정한 애교심이 생겨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11월호를 읽고

구성원의 의무는

참여에 있다.

邊碩斗(57년 齒大卒)번치과의원장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들면 가족친지모임, 친구모임, 직장동료모임, 봉사단체모임, 같은 직업들끼리의 모임, 동창관계모임 등등 여러가지 형태들의 모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모임들의 일원(一員)으로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본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손익계산을 따지고 사리사욕(私利私慾)만을 챙긴다면 진정한 모임의 참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총동창회의 지표가 참여하여 협력하고 영광을 찾아가 아니던가?



보관 용이한

주간지 형태로...

金正吉(62년 音大卒)모교 교수

동창회보를 받아볼 때마다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다.

애써 질 좋은 많은 기사와 볼거리 그리고 상호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지만 접혀진 지면을 들추어볼 때면 꼭 더럽혀진 3流紙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용은 좋지만 포장이 잘 안된 상품을 받아볼 때와 같다.



이제 지면도 많아졌으니 주간지(시사저널, 타임지, 뉴스위크) 같은 체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화려하지 않지만 특색있는 얼굴을 가진, 읽기전에 갖고 싶은 그런 책 말이다. 보관도 하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 말이다.

요사이 배달되는 사보 광고물 그러한 홍수 속에 동창회보가 쉽게 눈에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신했으면 좋겠다.

문화
단신

新刊

■사무엘 울만과「青春」

—尹惠淳 譯



한국은행 인력개발실장으로 재직 중인尹惠淳(63년 法大卒) 동

문이 美엘라배마대학교 마가렛 E. 암브레스터교수의 저서「사무엘 울만과 청춘—생애와 유산—」번역판을 출간했다.

부인 林圭姬여사의 미술작품 모란을 표지로 장식한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 주석과 참고문헌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국번역출판사刊·값7,500원)

■MBC라디오골든마우스

그리고 Face—Mask

—李丙台 著



李丙台(67년 齒大卒·이병태치과의원장) 동문이 치과의사가 된지

30주년 기념으로 Face—Mask(moulage)에 대한 지침서를 펴냈다.

MBC라디오 측의 제작의뢰를 받고 이종환, 김기덕, 강 석, 이문세, 김혜영 등의 얼굴을 인상해서 만드는 과정을 컬러사진과 설명을 상세히 담아 흥미

를 더해준다. (치과세계사刊·값 10,000원)

■韓半島 非武裝地帶論

—諸成鎬 著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諸成鎬(81년 法大卒) 동

문이 「DMZ를 평화지대로」란 부제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과 함께 접경지역의 개발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록으로 한국정전관련 문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주민거주 실태 및 생태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게재해 이 분야 연구에 관심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서울프레스刊·값 12,000원)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다

—柳京姬 著



종교학자로서 인도종교와 사상을 연구해 온柳京姬(96년 大學

院卒)동문이 약 2년동안 인도에 체류하면서 얻은 자아발견의 깨달음과 삶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인도 종교 사상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등을 짙막한 일화와 아포리즘적인 글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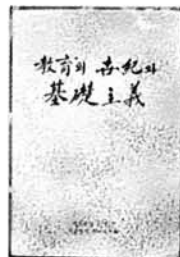
이 책은 인도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규장각刊·값7,000원)

■教育的 世紀와

基礎主義

— 기초주의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청 퇴韓基彦(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 동문이「기초주의」

를 제창한지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초주의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위원장 李敦熙·60년 師大卒) 후학들이 뜻을 모아 기념논문집을 펴냈다.

이 논문집은 3부로 나눠 기초주의 이념을 교육과 교육학의 몇 가지 주제에 적용하여 해석한 연구 논문, 韓동문의 학문과 삶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회고담, 韓동문이 간행한 저서의 서문 등을 함께 실어 韓동문의 학문적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학사刊·비매품)

公演

■鄭元順바이올린독주회

—12월 21일 예술의 전당

성신여대와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에 출강하고 있는鄭元順(89년 音大卒)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프로코피예프, 프랑크, 비에나아프스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安興燮기자)

朴用根 변호사

중년 나이에 가수의 꿈 이뤄

수익금으로 불우 아동 돕기도



李完烈·朴用根(右)동문.

『처음 음반이 나왔을 때는 마치 모교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20여년 전의 그때 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록과 발라드계열 10여곡이 실린 음반을 출시, 가수로 데뷔한 현직 변호사인 朴用根(80년 法大卒·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동문.

경기고와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로 법조계에 나온 朴동문이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것은 너무도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전 7살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여 3년간 꾸준히 교습을 받아 2학년 여름 용산 철우회관 쇼무대에 기타연주자로 출연했으며 그 당시 반응이 좋아 추석에는 인천 자유극장 쇼무대에 다시 서기도 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 이상 대외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것이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더이상 늦으면 아예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TV에 나오는 가수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올해초 朴동문은 대학 동기생이자 같은 사무실 동료인 李完烈(80년 法大卒·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동문에게 매니저로 일해줄 것을 제의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매니저인 李동문의에도 후배가수 박

광현씨가 함께 참여하여 「나의 손을 잡아, 「우리는」 등 신곡 6곡을 작사, 작곡 해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수 권인하씨로부터 음악지도를 받아 가며 같은 노래를 밤새 반복 연습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법정 주변에서 어른들의 다름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딱한 처지를 너무 자주 보아온 李동문은 음반 및 가수활동의 수익금을 이혼가정의 어린이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법이란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여 자주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 최후 또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인의 영역을 존중한다면 법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뚜렷한 법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朴동문은 음반 홍보를 위하여 방송출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시 본업인 변호사 업무도 소홀히 다룰수 없는 형편이라 요즘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한다.

앞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朴동문은 『저를 찾는 관객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 공연할 것이며, 적당한 시기에는 라이브 콘서트도 가질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가슴에 묻어두었거나 이제 막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동문들에게 朴동문은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가수로 데뷔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동문들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李容秀 축구해설위원

월드컵 UAE전 승리의 견인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할 터



『KBS 李容秀 해설위원의 전략분석이 이번 승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월 4일 월드컵 예선 아랍에미리트 전 홈경기가 끝나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범근 감독은 우리에게 낮은 이름을 지목하였다.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컴퓨터와 같은 치밀한 전략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예상 스타팅 멤버 및 공격 전략을 예측하여 그대로 적용시킨 KBS축구해설위원이자 축구협회 기술위원인 李容秀(81년 師大卒·세종대 교수)동문.

영신초등학교 6학년때 처음 축구와 인연을 맺고 서울 체중·고를 거쳐 모교 사범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李동문은 모교 축구부가 78년 「대학불철 연맹전」에서 무적의 8강 신화를 이룰 수 있게 한 주역 중의 한 사람이다. 졸업 후 해병대 축구단 및 상업은행, 럭키 금성, 한텔루아 등 아마추어 및 프로선수로 활동하면서 「컴퓨터 링커」로 통할 정도로 뛰어난 공격형 미드 필드로 이름을 날렸다.

『92년 동대문운동장으로 축구경기를 보러갔다가 라디오 해설위원이 갑자기

안나오는 바람에 본부석 임원의 소개로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이러한 우연으로 축구해설위원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96년부터이며, 올해는 전속 계약을 맺어 호주 4개국 친선경기 및 월드컵 예선경기 등을 통해 李동문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중계방송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96년 올림픽 마지막 예선전이 열렸던 말레이시아에서는 홍수로 경기가 1시간이나 지연되어 그곳의 해외 축구 임원들과 갑작스런 인터뷰를 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축구 대표팀이 예상을 뒤엎고 초반에 4연승을 거둬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쏠린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설위원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만의 방식으로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들이 축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李동문은 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 지난 93년부터 활동해오고 있어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번 월드컵 예선경기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기술위원회 산하 「대표팀 강화소위원회」의 아랍에미리트 전담자로서 현지를 직접 방문, 2번의 평가전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신의 몫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사실은 나머지 강화위원들이 모두 동문이라는 것이다. 姜信寓(82년 師大卒·SBS해설위원), 金鍾煥(85년 師大卒·모교 강사), 申東成(71년 師大卒·한국체육과학연구원), 李東佑(85년 大學院卒·한국체육과학연구원)동문이 그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축구계 내에는 많은 모교 출신들이 지도자 및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美)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동창회 운영과 모교지원 활동에 밑거름이 됩니다.

회보를 받아보시는 국내외 동문중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理事: 9월 30일 ~ 10월 13일 • 一般: 10월 1일 ~ 10월 13일〉

회 장 단

- ▲부회장 玄在賢=1백만원
- ▲부회장 卞柱仙=1백만원

이 사

◇人文大學

- ▲최갑수 70 서울대 교수

◇社會科學大學

- ▲구영수 77 제일기획경영지원

◇家政大學

- ▲백희영 69 서울대 교수

◇經營大學

- ▲김은상 78 모간스탠리

◇工科大學

- ▲강성안 62 한림공업 대표
- ▲강일구 64 과기원 연구위원
- ▲고유문 65 LG화학 부사장
- ▲김경식 66 특허법률사무소장
- ▲김기협 71 선경인더스트리
- ▲김노수 62 서울대 명예교수
- ▲김락성 60 전기통신공사사장
- ▲김병현 60 종합건축사무소장
- ▲김영경 66 UTL 사장
- ▲김왕신 77 인도직물공업이사
- ▲김인기 68 한국자원연구원
- ▲김인석 69 일건건축사 소장
- ▲김일두 64 코오롱전자 대표
- ▲김정욱 60 전고속철도
- ▲김정철 66 정림건축 회장
- ▲김지섭 68 한전기공 고문
- ▲김찬식 60 코오롱유화 전무
- ▲김현진 70 현영시스템 대표
- ▲김형걸 67 광산상사 대표
- ▲김호근 64 남서울산업대총장
- ▲김희국 68 (주)위도 대표
- ▲류시영 69 한국자원연구원
- ▲마선일 64 경영지도사
- ▲문성득 65 부산공업대 교수
- ▲박용진 68 홍익대 명예교수
- ▲박평주 42 서울대 명예교수
- ▲백상목 64 대원건영 사장
- ▲백이호 67 서현건설 대표
- ▲서석천 67 한전기공 사장
- ▲선우정 66 에프건축 대표
- ▲송종섭 61 무림산업 사장

- ▲신현석 60 종합전기 부사장
- ▲안홍문 69 효성T&C 전무
- ▲양정웅 68 코아인코프레이티드
- ▲오성근 62 하나그룹 대표
- ▲윤진 70 삼천리기계 대표
- ▲윤장섭 60 서울대 명예교수
- ▲이관 63 전경원대 총장
- ▲이면기 68 선경인더스트리
- ▲이상각 73 코스코 사장
- ▲이상호 77 동성ENG 상무
- ▲이성규 64 삼원정밀금속대표
- ▲이원국 62 (주)대원 대표
- ▲이재규 63 라우건축소장
- ▲이창건 64 원자력연구원위원
- ▲이현구 64 대우건설 부사장
- ▲인주선 63 호남해운 대표
- ▲임종태 69 태양섬유상사대표
- ▲정연택 65 명지전문대 학장
- ▲정옥희 69 부곡 호수장 사장
- ▲조선희 65 서울대 명예교수
- ▲조창휘 60 고려산업개발전무
- ▲조태현 67 화승제지 대표
- ▲조흥균 67 동부ENG사장
- ▲주종원 67 서울대 교수
- ▲최광호 41 동서산업회장
- ▲최운재 66 신한양바스프우레탄
- ▲최창환 64 창성금속 대표
- ▲하명수 64 전한국가프레타
- ▲한방교 65 부천전문대학장
- ▲황덕연 64 국립건설시험소
- ▲황이선 66 한국감정원본부장

◇農科大學

- ▲김석동 70 농진청작물시험과
- ▲김성수 67 서울대 교수
- ▲김시경 68 전진주산업대총장
- ▲김종욱 75 공주대 교수
- ▲문준웅 63 전미원음료대표
- ▲박정수 69 건교부 보수과장
- ▲변종훈 68 한일화학 대표
- ▲손병암 73 강원대 교수
- ▲오민영 65 전임업연구원
- ▲이병일 63 서울대 교수
- ▲이상춘 68 중앙기술 부사장
- ▲임경순 68 서울대 교수
- ▲정만재 69 충북도교육위원
- ▲정민섭 63 경북대 교수
- ▲정창현 64 전국회의원
- ▲홍진 64 금북주 부사장
- ▲홍범기 63 신성화학 대표

◇文理科大學

- ▲구연규 60 전대동공업이사
- ▲권숙일 68 과기처 장관
- ▲김동섭 61 거양상사 대표
- ▲김봉호 49 전숙명여대 교수
- ▲김준수 66 대림산업 전무
- ▲김현철 69 삼성물산 사장
- ▲김현철 60 해운대여고교장
- ▲남영우 72 농협시흥지부장
- ▲박맹호 67 민음사 사장
- ▲박우용 63 신세대제약 대표
- ▲박지동 67 광주대 교수
- ▲서의규 72 국제강제 대표
- ▲염용제 69 법양ENG 사장
- ▲육세홍 70 국민은행 지점장
- ▲윤명중 67 한결문화사 회장
- ▲윤혁기 67 서울방송 사장
- ▲이병기 71 안기부 2차장
- ▲이영원 63 세방전기 전무
- ▲이종복 66 심설당 사장
- ▲임상원 62 고려대 교수
- ▲장윤경 65 숙명여대 교수
- ▲장준성 69 서울대 교수
- ▲장중웅 68 한국철강협회전무
- ▲정문모 64 광천실업 대표
- ▲정진태 61 한려친선협력회장
- ▲조세형 60 전국회의원
- ▲최규영 65 한국경제신문상무
- ▲최승부 69 전노동부차관
- ▲홍종호 66 대전공영 대표

◇美術大學

- ▲송용섭 60 한양여전 교수
- ▲이시용 65 L.S.Y연구소사장
- ▲한도룡 68 홍익대 교수

◇法科大學

- ▲권남혁 71 광주교법부장판사
- ▲권영훈 75 변호사
- ▲김덕영 65 2002월드컵사무총장
- ▲김상기 67 서울교법부장판사
- ▲김성기 68 변호사
- ▲김성길 64 변호사
- ▲김세재 67 통일강업 대표
- ▲김영훈 60 전한국조세연구원
- ▲김우성 68 울산대행정학과장
- ▲김응렬 63 변호사
- ▲김재하 68 대양관세사무소
- ▲김정학 75 서울지법서부지원
- ▲김종정 62 한터트레이드센터

- ▲김주완 69 우성건설 상무
- ▲김중환 65 두호실업 회장
- ▲김창호 64 현대증권 고문
- ▲김창희 65 산업투자협회장
- ▲나정욱 64 변호사
- ▲남승우 74 풀무원식품 대표
- ▲노이현 62 기업은행 부행장
- ▲목요상 61 국회의원
- ▲문규상 78 서울지검 검사
- ▲문동후 71 소정심사위원
- ▲문영길 69 변호사
- ▲박준 77 변호사
- ▲박동수 69 한국은행 감사국장
- ▲박석규 69 한양유통 이사
- ▲박유광 66 생산성본부 회장
- ▲박일재 69 대한법률 협의회
- ▲박종욱 67 변호사
- ▲박종현 63 삼양제넥스 사장
- ▲박정석 66 감사원 감사관
- ▲박효성 65 대한항공 전무
- ▲변정일 64 국회의원
- ▲서상희 72 삼성물산영업이사
- ▲성영수 68 강원산업 대표
- ▲손근석 63 포스코개발 회장
- ▲송영수 60 한진중공업 대표
- ▲송인준 67 대검찰청강력부장
- ▲신성국 79 변호사
- ▲신창원 64 헌법재판소재판관
- ▲안명기 66 남산법률사무소
- ▲염창현 67 대양상호신용대표
- ▲오세제 72 청주 부시장
- ▲오현진 63 변호사
- ▲원장환 62 삼원빌딩 사장
- ▲유기홍 64 삼일테크 회장
- ▲유길수 68 변호사
- ▲유재신 64 전전북교육청
- ▲윤찬렬 76 변호사
- ▲이경하 68 관광공사진흥본부
- ▲이덕모 75 변호사
- ▲이동락 64 대구지법원장
- ▲이삼섭 72 금호주택할부금융
- ▲이석현 78 국회의원
- ▲이순우 60 변호사
- ▲이은우 66 국민은행 본부장
- ▲이정렬 68 전인천항관리공단
- ▲이진세 63 현대중공업 부사장
- ▲이흥서 65 국제화재해상보험
- ▲전응진 67 미주상사 대표
- ▲정성철 66
- ▲정연조 69 변호사
- ▲정인섭 77 서울대 교수

- ▲정지용 68 대림상회 사장
- ▲조건호 66 국무총리비서실장
- ▲조규항 64 부산외대 총장
- ▲조병선 60 삼원철강 상무
- ▲조봉균 63 교통관광TV 단장
- ▲조석제 68 한국유통 회장
- ▲조영일 66 변호사
- ▲조형일 73 HI 무역 대표
- ▲주성민 73 변호사
- ▲주진학 68 변호사
- ▲천명기 68 식품공업협회장
- ▲최병한 67 유창기업 고문
- ▲최주곤 60 변호사
- ▲추영일 65 전제일은행사무
- ▲하일부 61 변호사
- ▲한만춘 42 변호사
- ▲한상술 64 서울전산학원장
- ▲한승희 61 이진메디칼 대표
- ▲홍학표 62 건국대 교수
- ▲황의만 74 변리사

◇師範大學

- ▲권상철 65 안양재단이사장
- ▲김관영 65
- ▲김용길 61 경기대 교수
- ▲민경현 67 풍문여고 교장
- ▲박해숙 79 서원대 교수
- ▲신홍남 67 대원중 교장
- ▲원혜영 71 전국회의원
- ▲이형 64 대전대전지계산소
- ▲이관형 67 서울교대 교수
- ▲이상주 60 한림대 총장
- ▲이성목 71 서울대 교수
- ▲이정자 68 예림사 사장
- ▲이종락 62 양천중 교장
- ▲이희호 60 아태평화재단이사
- ▲임홍조 64 금성고교서 사장
- ▲정문환 60 수유중학교
- ▲정복래 68 중대부남중 교장
- ▲정찬모 70 단국대 교수
- ▲조이남 65 금융결제원 상무
- ▲황철수 61 대한삼락회장

◇商科大學

- ▲강문창 60 두산건설 사장
- ▲구선희 60 BC카드 감사
- ▲구제성 64 경인기계 대표
- ▲권보상 60 동양창업투자고문
- ▲권영수 67 신한국주유소사장
- ▲권희택 60 안동버스 사장
- ▲김광 66 호유해운 사장
- ▲김병수 60 회승그룹기조실장

▲김석규(前)한일합부금융
▲김성렬(前)한국선물거래
▲김승정(前)선경 대표
▲김원길(前)국회의원
▲김창달(前)한국중금대표
▲김채겸(前)국회의원
▲김홍구(前)두산건설 전무
▲민경효(前)펜타컴퓨터 고문
▲박명식(前)한세텔레콤 사장
▲박승일(前)한국코닥 회장
▲박화순(前)홍천세무서장
▲서동은(前)한타인더스트리
▲손희균(前)공주사대 교수
▲신정철(前)삼양통상 대표
▲오창규(前)LG IBM PC 사장
▲윤여탁(前)브링스코리아대표
▲이광우(前)동화합부금융사장
▲이승균(前)경남금융경제
▲이영기(前)서울대 명예교수
▲이한철(前)
▲이한섭(前)한국전력지사장
▲이홍주(前)국민은행지역본부
▲임재주(前)국세청장
▲장종록(前)은성사 기술고문
▲전영배(前)대성전기공업감사
▲정덕용(前)문화실업 대표
▲정복영(前)한성기업 대표
▲정중기(前)신용기금 이사장
▲제정오(前)한국은행인사부장
▲조문규(前)동화기업 상무
▲최규성(前)고려화성 대표
▲최명걸(前)삼신윌스테이트
▲홍사목(前)남서울관세사대표

◇獸醫科大學

▲김성수(前)장성축산조합장
▲이수철(前)울산시청 축산과
▲차종상(前)중앙가축약품대표

◇藥學大學

▲고대승(前)영일약품 전무
▲권경근(前)현암약국
▲김장호(前)세심약국
▲문병우(前)보건복지부과장
▲박동순(前)
▲박만기(前)서울대 교수
▲박종남(前)아산사회복지재단
▲오연준(前)효진물산 대표
▲유용근(前)한국그락소 전무
▲이태희(前)고려제약 이사
▲장일무(前)서울대 교수
▲장학순(前)신신제약 고문
▲정동원(前)진양제약 대표
▲지상구(前)우진양행 사장
▲최양웅(前)대성미생물학

◇音樂大學

▲유영명(前)서울교대교수

◇醫科大學

▲고계환(前)정형외과의원장
▲고광욱(前)한양대병원
▲구철회(前)성형외과의원장
▲김상립(前)정형외과의원장
▲김영덕(前)원효로의원장
▲김재홍(前)한양의대피부과장
▲김중환(前)서울대 교수
▲김형전(前)대한안과학회장
▲노동두(前)서울백제병원장
▲민병철(前)서울중앙병원장
▲박기홍(前)박산부인과원장
▲박상용(前)서부병원

▲박인서(前)제일병원 고문
▲송창섭(前)을지병원내과부장
▲신현호(前)제일병원내과과장
▲안동현(前)한양대 교수
▲유영구(前)신경외과의원장
▲이 철(前)서울중앙병원
▲이대규(前)민경산업 대표
▲이봉화(前)한강성심병원
▲이순탁(前)평화내과의원장
▲이영호(前)이비인후과의원장
▲임한중(前)고려대 명예교수
▲정문상(前)서울대 교수
▲한만정(前)서울대병원장
▲한만희(前)대명의원장
▲한명렬(前)한일의원장

◇齒科大學

▲강석봉(前)강치과의원장
▲김경원(前)경원치과의원장
▲김광빈(前)건치과의원장
▲김기현(前)마산치과의원장
▲김길태(前)치과의원장
▲김성오(前)치과의원장
▲김여미(前)성북치과의원장
▲김왕국(前)치과의원장
▲류재훈(前)유치과의원장
▲박형운(前)박치과의원장
▲박형기(前)치과의원장
▲송영호(前)송치과의원장
▲안병근(前)한강성심병원
▲우원희(前)우치과의원장
▲이배진(前)치과의원장
▲이후승(前)치과의원장
▲장삼창(前)장치과의원장
▲장영정(前)치과의원장
▲정상주(前)치과의원장
▲정하익(前)치과의원장
▲정해원(前)치과의원장
▲조사현(前)치과의원장
▲한남수(前)치과의원장
▲허연옥(前)강성치과의원장
▲허정국(前)한진치과의원장

◇大學院

▲김응진(前)을지병원의무원장

◇經營大學院

▲김윤택(前)대광광산 회장
▲김정태(前)신사주유소 회장
▲문국현(前)유한김벌리 사장
▲이종실(前)나진실업 이사장
▲이찬하(前)신한회계법인대표

◇教育大學院

▲정용술(前)광남교 교장

◇保健大學院

▲김수철(前)성형외과의원장
▲김진순(前)한국보건사회학

◇司法大學院

▲문영길(前)변호사
▲조가운(前)법률구조사무총장

◇行政大學院

▲백상승(前)민족통일협의회장
▲서재근(前)신한국창조본부
▲신현웅(前)대통령 비서관
▲전주식(前)국가안보회의
▲최규학(前)국무총리 행정실

◇최고경영자과정

▲권기술(前)국회의원

일 반

◇人文大學

▲권형돈(前)
▲김환국(前)
▲박하영(前)
▲유명숙(前)
▲이건협(前)
▲이봉연(前)
▲이형용(前)
▲진경년(前)
▲피재걸(前)
▲김찬식(前)
▲박성민(前)
▲우영관(前)
▲윤정현(前)
▲이남린(前)
▲이정승(前)
▲정소운(前)
▲최태영(前)

◇社會科學大學

▲강종표(前)
▲권용신(前)
▲김광진(前)
▲김상완(前)
▲김재천(前)
▲김한상(前)
▲김형민(前)
▲민성원(前)
▲백형기(前)
▲엄태종(前)
▲윤정화(前)
▲이재덕(前)
▲정동중(前)
▲조진완(前)
▲최병준(前)
▲최효종(前)
▲한인택(前)
▲구본천(前)
▲김광덕(前)
▲김기수(前)
▲김승현(前)
▲김진우(前)
▲김현수(前)
▲김희천(前)
▲박병룡(前)
▲안선아(前)
▲오동현(前)
▲이용직(前)
▲전명근(前)
▲조상희(前)
▲조현욱(前)
▲최우석(前)
▲한인구(前)

◇自然科學大學

▲공홍진(前)
▲김완규(前)
▲박해정(前)
▲송세안(前)
▲엄성화(前)
▲이기창(前)
▲이은경(前)
▲장병태(前)
▲장윤희(前)
▲한문섭(前)
▲현운정(前)
▲권진혁(前)
▲민영철(前)
▲서병진(前)
▲신성권(前)
▲윤석준(前)
▲이동일(前)
▲이태형(前)
▲장승현(前)
▲조성현(前)
▲한성호(前)

◇家政大學

▲고효정(前)
▲김구자(前)
▲김수향(前)
▲박란정(前)
▲백완희(前)
▲신귀철(前)
▲우종란(前)
▲이승선(前)
▲정은희(前)
▲조옥례(前)
▲최난희(前)
▲권진숙(前)
▲김수연(前)
▲김용숙(前)
▲반영하(前)
▲서혜석(前)
▲신은철(前)
▲은경자(前)
▲정귀화(前)
▲조명숙(前)
▲조정애(前)
▲한경옥(前)

◇看護大學

▲김봉인(前)
▲김영아(前)
▲박영신(前)
▲이영신(前)
▲김영숙(前)
▲박계순(前)
▲안영숙(前)
▲이현숙(前)

◇經營大學

▲권성희(前)
▲김광호(前)
▲김성환(前)
▲맹동준(前)
▲박 준(前)
▲박원우(前)
▲김갑주(前)
▲김석진(前)
▲김종학(前)
▲문정환(前)
▲박세환(前)
▲박정석(前)

▲송윤화(前)
▲오동준(前)
▲유병옥(前)
▲이정원(前)
▲이호창(前)
▲허승호(前)

◇工科大學

▲강경호(前)
▲강길건(前)
▲강문석(前)
▲강상희(前)
▲강승주(前)
▲강진수(前)
▲강현식(前)
▲고영희(前)
▲고충준(前)
▲공정흥(前)
▲곽순섭(前)
▲곽태균(前)
▲구만복(前)
▲구형모(前)
▲권봉일(前)
▲권옥현(前)
▲권혁준(前)
▲김 윤(前)
▲김경호(前)
▲김규홍(前)
▲김남준(前)
▲김덕우(前)
▲김반석(前)
▲김선욱(前)
▲김수래(前)
▲김양성(前)
▲김영민(前)
▲김영환(前)
▲김용권(前)
▲김용철(前)
▲김웅기(前)
▲김원식(前)
▲김원태(前)
▲김재영(前)
▲김정호(前)
▲김종국(前)
▲김중연(前)
▲김진철(前)
▲김채식(前)
▲김택훈(前)
▲김한석(前)
▲남궁옥(前)
▲남원식(前)
▲노세래(前)
▲두송학(前)
▲민승기(前)
▲박경호(前)
▲박기석(前)
▲박대복(前)
▲박상돈(前)
▲박성배(前)
▲박정문(前)
▲박태현(前)
▲박휴찬(前)
▲박희영(前)
▲방정은(前)
▲배재욱(前)
▲배중서(前)
▲변선호(前)
▲서명환(前)
▲서태원(前)
▲성수영(前)
▲손석원(前)
▲송병록(前)
▲송주훈(前)

▲신승계(前)
▲오창호(前)
▲이익찬(前)
▲이춘흡(前)
▲조 협(前)

▲강기종(前)
▲강동구(前)
▲강민구(前)
▲강석훈(前)
▲강일우(前)
▲강행언(前)
▲강효준(前)
▲고창현(前)
▲공용두(前)
▲곽병영(前)
▲곽영명(前)
▲구경본(前)
▲구석근(前)
▲구희종(前)
▲권순우(前)
▲권해욱(前)
▲길병규(前)
▲김 철(前)
▲김광일(前)
▲김기현(前)
▲김대하(前)
▲김동철(前)
▲김병남(前)
▲김성중(前)
▲김승현(前)
▲김영기(前)
▲김영철(前)
▲김영훈(前)
▲김용길(前)
▲김용한(前)
▲김용범(前)
▲김원중(前)
▲김의수(前)
▲김재철(前)
▲김정호(前)
▲김종영(前)
▲김진오(前)
▲김창호(前)
▲김충남(前)
▲김학균(前)
▲김홍일(前)
▲남용민(前)
▲남이현(前)
▲노승규(前)
▲문수길(前)
▲박경배(前)
▲박기서(前)
▲박노선(前)
▲박봉철(前)
▲박상준(前)
▲박익민(前)
▲박태원(前)
▲박휘진(前)
▲박희규(前)
▲방석현(前)
▲배인호(前)
▲배재흡(前)
▲백운해(前)
▲서경덕(前)
▲서태왕(前)
▲성낙현(前)
▲소병훈(前)
▲손혜환(前)
▲송재병(前)
▲송호성(前)

▲신동준(前)
▲신영철(前)
▲신원기(前)
▲신창덕(前)
▲신현직(前)
▲심윤식(前)
▲심재원(前)
▲안상록(前)
▲안태환(前)
▲양만영(前)
▲어윤필(前)
▲오양섭(前)
▲오해석(前)
▲우형철(前)
▲유용선(前)
▲윤경우(前)
▲윤봉중(前)
▲윤세영(前)
▲윤용수(前)
▲윤정호(前)
▲이건이(前)
▲이경식(前)
▲이계환(前)
▲이광제(前)
▲이근명(前)
▲이근호(前)
▲이동호(前)
▲이두호(前)
▲이방원(前)
▲이병록(前)
▲이상석(前)
▲이상희(前)
▲이성관(前)
▲이승준(前)
▲이오연(前)
▲이완영(前)
▲이용우(前)
▲이운형(前)
▲이원복(前)
▲이임택(前)
▲이재원(前)
▲이정목(前)
▲이종무(前)
▲이창규(前)
▲이춘식(前)
▲이필한(前)
▲이형석(前)
▲이호순(前)
▲이흥배(前)
▲인성남(前)
▲임한욱(前)
▲장상귀(前)
▲장윤식(前)
▲전홍우(前)
▲정병하(前)
▲정우식(前)
▲정인택(前)
▲정종대(前)
▲정진승(前)
▲정희준(前)
▲조성준(前)
▲조용준(前)
▲조유근(前)
▲조진우(前)
▲진민성(前)
▲차진수(前)
▲최석윤(前)
▲최승훈(前)
▲최영택(前)
▲최이욱(前)
▲최형남(前)
▲하만진(前)
▲한 철(前)

▲신승근(前)
▲신용창(前)
▲신종철(前)
▲신창수(前)
▲심영보(前)
▲심일보(前)
▲안병창(前)
▲안상춘(前)
▲양동률(前)
▲양태흡(前)
▲오병욱(前)
▲오택길(前)
▲우종삼(前)
▲유승화(前)
▲윤 문(前)
▲윤길수(前)
▲윤봉한(前)
▲윤승욱(前)
▲윤은원(前)
▲윤한석(前)
▲이경보(前)
▲이경원(前)
▲이광무(前)
▲이귀로(前)
▲이근욱(前)
▲이기백(前)
▲이두원(前)
▲이문석(前)
▲이범철(前)
▲이보호(前)
▲이상희(前)
▲이선환(前)
▲이세혁(前)
▲이안부(前)
▲이완구(前)
▲이용식(前)
▲이용학(前)
▲이용희(前)
▲이일환(前)
▲이재욱(前)
▲이정덕(前)
▲이종덕(前)
▲이종석(前)
▲이철형(前)
▲이충우(前)
▲이한정(前)
▲이호선(前)
▲이호영(前)
▲이희일(前)
▲임영섭(前)
▲임홍재(前)
▲장성태(前)
▲장철현(前)
▲정광용(前)
▲정봉주(前)
▲정원영(前)
▲정재관(前)
▲정주영(前)
▲정해식(前)
▲조성기(前)
▲조연제(前)
▲조용훈(前)
▲조주현(前)
▲지선호(前)
▲진병찬(前)
▲천익정(前)
▲최수준(前)
▲최영섭(前)
▲최외호(前)
▲최홍준(前)
▲한 열(前)
▲한기석(前)

▲한도성⁵²
▲한운정⁶¹
▲함인선⁸²
▲허 준⁹⁰
▲홍성목⁵⁸
▲홍의석⁸⁷
▲황성조⁵⁷
▲황정성⁶⁰

◇農科大學

▲강광희⁶³
▲강희신⁵⁷
▲고일웅⁶⁵
▲금태섭⁸²
▲김기수⁶¹
▲김남식⁵⁹
▲김만목⁶⁶
▲김선영⁸⁶
▲김용호⁹⁴
▲김재식⁸³
▲김정표⁷⁵
▲김진목⁵⁹
▲박 호⁶³
▲박원규⁶⁴
▲박종국⁶³
▲박진구⁶⁴
▲박효욱⁹⁴
▲배정길⁶⁷
▲변영숙⁷⁴
▲부경생⁶⁴
▲서인식⁶⁶
▲성명제⁷²
▲송종익⁵⁹
▲신상혁⁶²
▲신영무⁶⁵
▲신태식⁶⁵
▲양석홍⁶²
▲오형진⁸⁶
▲우종구⁸⁵
▲유명하⁶⁶
▲유장상⁶⁷
▲이관호⁶⁸
▲이기영⁸⁶
▲이달문⁶⁶
▲이병현⁶⁶
▲이순욱⁷⁴
▲이영래⁷⁰
▲이용훈⁷⁹
▲이용돈⁹²
▲이재완⁷⁵
▲이진호⁶⁵
▲이창우⁴⁹
▲이택구⁵⁹
▲이회영⁷⁹
▲임성훈⁷⁷
▲장운룡⁵⁵
▲전광술⁵⁷
▲정연석⁶⁵
▲정종수⁶⁴
▲정항연⁸³
▲제종근⁷⁰
▲조병국⁶¹
▲조수경⁷⁶
▲차석정⁵⁸
▲채대석⁶⁵
▲최연호⁷⁸
▲최종현⁵⁰
▲최현준⁹⁶
▲허찬행⁸²
▲현창순⁶⁸

◇文理科大學

▲한명의⁵¹
▲함상우⁸⁴
▲함주호⁸³
▲허병구⁴²
▲홍영진⁷⁸
▲황병구⁴⁸
▲황일인⁶³
▲황환무⁵²

▲강봉춘⁶³
▲고상현⁸⁹
▲권성기⁸⁹
▲김 철⁹⁵
▲김기환⁸⁰
▲김남혁⁵⁷
▲김봉희⁸²
▲김영호⁷⁷
▲김재근⁷⁹
▲김재진⁶⁵
▲김지연⁸⁸
▲김훈동⁶⁹
▲박내정⁶⁴
▲박정덕⁵⁹
▲박준식⁷⁹
▲박홍준⁸⁹
▲박희창⁵⁵
▲배종선⁷¹
▲변종식⁷¹
▲서든영⁶⁷
▲서정근⁶⁵
▲손세호⁵⁷
▲신민식⁶³
▲신언곤⁵⁸
▲신춘식⁸⁰
▲안건용⁶⁶
▲오종환⁶⁴
▲우건석⁵⁹
▲유광일⁷³
▲유원석⁶⁵
▲이경희⁵⁸
▲이규희⁷⁰
▲이기종⁶⁵
▲이명희⁷¹
▲이상하⁶²
▲이시철⁵³
▲이영배⁶⁵
▲이우용⁵⁵
▲이장희⁵⁹
▲이종섭⁶²
▲이창근⁶⁴
▲이태영⁵⁸
▲이현국⁶⁵
▲임노현⁶³
▲임영오⁸²
▲장운환⁶⁰
▲전우방⁶¹
▲정재혁⁵⁶
▲정택수⁶⁶
▲정해각⁶¹
▲조남길⁷²
▲조상래⁶⁶
▲조수형⁶³
▲차성운⁶¹
▲최동환⁶²
▲최예환⁶⁵
▲최죽송⁶²
▲허동명⁹⁶
▲현권수⁸⁷
▲홍재희⁶²

▲강세원⁶⁰
▲고문중⁷⁴
▲고윤석⁵⁴
▲권혁방⁷²
▲권형중⁶⁷
▲김경화⁷³
▲김기현⁵⁷
▲김리나⁶⁴
▲김성기⁶⁵
▲김승국⁶⁰
▲김영도⁵⁶
▲김영철⁶⁸
▲김유진⁶⁵
▲김의기⁷⁴
▲김정숙⁶²
▲김주태⁵⁸
▲김철남⁶⁴
▲김태승⁶⁴
▲남기상⁵⁶
▲남형화⁷⁴
▲마수학⁷²
▲박두일⁵⁶
▲박상기⁷⁵
▲박용오⁷⁰
▲박해용⁶⁸
▲서범자⁶³
▲성세렬⁶³
▲손문자⁶²
▲송기중⁶⁵
▲송영오⁷⁰
▲신정후⁵⁷
▲심문규⁷⁵
▲심의도⁶⁵
▲안계춘⁶¹
▲양 원⁶⁰
▲염재수⁷¹
▲우병규⁶⁵
▲원용문⁶⁶
▲유 영⁷⁰
▲유종하⁵⁹
▲이광수⁶⁹
▲이덕홍⁶⁰
▲이석철⁶³
▲이성재⁶³
▲이원호⁵¹
▲이인기⁶⁶
▲이재술⁶¹
▲이정명⁶⁶
▲이정호⁶⁵
▲이천복⁶¹
▲이통권⁷²
▲이현석⁷⁰
▲이호석⁷⁴
▲임승패⁷⁰
▲전종갑⁶⁸
▲정용승⁶²
▲조기웅⁷³
▲조한제⁷⁴
▲채영수⁷²
▲최완수⁶⁵
▲하이영⁵³
▲한일상⁶⁸
▲허두표⁶⁴
▲홍영희⁷¹
▲황연익⁶¹

◇美術大學

▲고승혜⁷⁰
▲김경자⁶⁵
▲문준호⁹⁵
▲박소현⁸⁴
▲백순실⁷⁴

▲강해용⁵⁶
▲고성광⁶⁷
▲고정택⁶⁶
▲권혁웅⁶³
▲김 훈⁶⁶
▲김광렬⁶⁰
▲김두영⁶⁴
▲김병각⁶⁷
▲김순복⁶³
▲김열회⁵⁸
▲김영인⁶⁸
▲김우철⁷¹
▲김윤환⁶⁴
▲김인자⁶³
▲김종환⁶⁵
▲김종술⁵⁹
▲김치수⁶⁴
▲김하진⁶²
▲남창우⁶¹
▲도일규⁶⁹
▲박계주⁶⁰
▲박병순⁶²
▲박영기⁶²
▲박종규⁷³
▲변광수⁶⁵
▲서연호⁶¹
▲성태진⁷¹
▲송 민⁶³
▲송길상⁵⁴
▲송창기⁶²
▲신태건⁷¹
▲심민화⁷⁴
▲심필섭⁵⁷
▲안녹영⁶⁸
▲염승섭⁶¹
▲염태호⁶³
▲우삼택⁷²
▲원인기⁷⁰
▲유민성⁷¹
▲윤재정⁵⁷
▲이근남⁷²
▲이명영⁵³
▲이선숙⁷³
▲이영수⁶⁸
▲이의호⁶⁵
▲이장우⁶¹
▲이재호⁶⁰
▲이정배⁶²
▲이창구⁷²
▲이철우⁶⁵
▲이향렬⁶⁵
▲이형기⁶²
▲이호원⁶⁸
▲장정행⁶⁷
▲정기용⁵⁹
▲정운양⁵⁹
▲조모형⁶¹
▲조화수⁷¹
▲최수영⁷¹
▲최태호⁷⁰
▲한단석⁵⁴
▲허 선⁶⁸
▲홍광하⁷¹
▲홍운경⁶¹
▲황원의⁶⁶

◇法科大學

▲강복수⁶⁹
▲강성구⁵⁷
▲권병일⁵⁷
▲권영순⁵⁵
▲김건식⁷⁷
▲김기완⁶⁴
▲김동주⁷¹
▲김동현⁷¹
▲김병욱⁷¹
▲김승옥⁶⁴
▲김영일⁶⁶
▲김용래⁵⁷
▲김윤구⁵¹
▲김태욱³⁷
▲김홍한⁴⁹
▲박 찬⁷⁰
▲박노문⁷⁰
▲박만수⁷²
▲박승훈⁶³
▲박장우⁷⁰
▲박홍우⁷⁴
▲서석두⁶³
▲서태윤⁶⁴
▲석성환⁵⁹
▲손기호⁸³
▲손정현⁵²
▲송용호⁸⁹
▲신명호⁶⁶
▲신성후⁶⁵
▲신헌정⁵²
▲안문태⁶⁴
▲안완선⁶⁸
▲안승천⁸⁰
▲양희종⁷²
▲연광석⁹¹
▲오기평⁵⁷
▲오찬영⁸⁹
▲우 진⁶⁴
▲유홍배⁵⁷
▲윤서성⁶⁶
▲윤종혜⁵⁹
▲이 현³⁷
▲이경우⁵⁵
▲이규완⁵⁷
▲이법록⁶⁰
▲이상기⁶³
▲이수영⁷⁸
▲이양자⁴⁰
▲이외수⁶⁷
▲이원달⁴⁷
▲이재관⁷⁵
▲이태식⁶¹
▲이호연⁶⁴
▲장지훈⁸⁴
▲전성희⁸³
▲정덕영⁶⁴
▲정승진⁸⁸
▲정치근⁵⁴
▲제갈용우⁶⁸
▲조남돈⁷⁶
▲조준열⁶⁰

▲성기점⁶²
▲안금희⁸⁹
▲윤미혜⁸⁰
▲윤형실⁵⁸
▲이만재⁸⁶
▲이우범⁶⁷
▲장동광⁸⁸
▲정석원⁸³
▲최숙경⁶³
▲최충웅⁶³

◇商科大學

▲강상준⁶³
▲구상진⁷²
▲권영로⁵⁹
▲권춘현⁶⁵
▲김광현⁵⁸
▲김길준⁵⁴
▲김동철⁶¹
▲김만호⁹²
▲김세중⁶⁵
▲김시현⁸³
▲김완진⁶⁸
▲김용한⁶³
▲김진표⁷¹
▲김홍걸⁷⁴
▲김홍기⁷⁹
▲박기동⁵⁹
▲박성귀⁷⁵
▲박우순⁶³
▲박호서⁷⁷
▲서돈각⁴⁶
▲서재현⁷¹
▲서형석⁶⁷
▲소정호⁶¹
▲손동원⁶⁴
▲손종대⁷⁰
▲신교준⁶⁶
▲신민규⁶²
▲신종대⁸²
▲안덕규⁶⁸
▲안영준⁵⁹
▲안정환⁶³
▲양정석⁶¹
▲염기영⁶²
▲염기창⁸⁹
▲오영진⁶⁹
▲오천석⁸⁰
▲유영철⁶⁴
▲유홍섭⁶²
▲윤재암⁷⁰
▲윤호일⁶⁵
▲이경민⁸⁰
▲이경우⁸³
▲이근식⁶⁹
▲이복영⁶⁶
▲이수경⁶¹
▲이순호⁸³
▲이영대⁸⁵
▲이용훈⁶³
▲이장성⁷¹
▲이주성⁸⁰
▲이현구⁶¹
▲장 권⁵⁹
▲전계후⁶⁸
▲전태봉⁵⁷
▲정민수⁶⁸
▲정재호⁷²
▲정희준⁶³
▲조광제⁵⁶
▲조재호⁷³
▲조한룡⁵⁹

▲심미용⁸⁶
▲안기순⁸³
▲윤옥진⁶⁸
▲이길룡⁶⁵
▲이상갑⁷⁰
▲이종학⁵²
▲전영철⁵³
▲정옥란⁶⁶
▲최진주⁸⁵
▲황남채⁷⁵

◇師範大學

▲구본혁⁶⁴
▲권 균⁶⁵
▲김경호⁵⁵
▲김길순⁶⁵
▲김민환⁵⁷
▲김순매⁴⁰
▲김식중⁵¹
▲김영태⁵⁷
▲김인숙⁵⁸
▲김종석⁵⁵
▲김진홍⁶⁴
▲김충희⁶³
▲김학수⁴⁰
▲노병룡⁶⁰
▲민영문⁸¹
▲박감순⁵⁷
▲박성수⁷¹
▲박정남⁵⁷
▲박찬세⁵³
▲배도식⁶¹
▲백남춘⁵²
▲변창혁⁶⁹
▲성송길⁶⁷
▲손병효⁵⁸
▲손용규⁵⁶
▲신광균⁶⁵
▲신준국⁷⁷
▲안경화⁹²
▲안역수⁶⁵
▲양태영⁴⁴
▲유서영⁷⁸
▲윤기승⁸⁰
▲이길오⁷⁷
▲이사행⁴⁵
▲이석주⁶⁰
▲이영인⁷⁸
▲이장숙⁵⁸
▲이준동⁶⁶
▲이현수⁷⁶
▲임영희³⁹
▲장일선⁶²
▲정병철⁸²
▲정인상⁷⁹
▲조강민⁶⁰
▲주대하⁸⁹
▲채영자⁶⁵
▲최병환⁷⁴
▲최충욱⁷⁵
▲한철규⁵⁷
▲현순영⁴⁹
▲황인실⁸⁸
▲황해복⁸³

◇商科大學

▲강원기⁷⁴
▲강종기⁶⁰
▲강창준⁵⁰
▲강태석⁵⁵
▲고상목⁵⁷
▲곽지용⁵³
▲권성우⁶⁹

▲조한창⁸⁷
▲조홍은⁶⁴
▲주민회⁵⁷
▲최낙현⁶⁸
▲최병모⁷¹
▲최춘근⁷⁶
▲한용기⁶²
▲함영섭⁸¹
▲홍순범⁵²

◇商科大學

▲구본혁⁶⁴
▲권 균⁶⁵
▲김경호⁵⁵
▲김길순⁶⁵
▲김민환⁵⁷
▲김순매⁴⁰
▲김식중⁵¹
▲김영태⁵⁷
▲김인숙⁵⁸
▲김종석⁵⁵
▲김진홍⁶⁴
▲김충희⁶³
▲김학수⁴⁰
▲노병룡⁶⁰
▲민영문⁸¹
▲박감순⁵⁷
▲박성수⁷¹
▲박정남⁵⁷
▲박찬세⁵³
▲배도식⁶¹
▲백남춘⁵²
▲변창혁⁶⁹
▲성송길⁶⁷
▲손병효⁵⁸
▲손용규⁵⁶
▲신광균⁶⁵
▲신준국⁷⁷
▲안경화⁹²
▲안역수⁶⁵
▲양태영⁴⁴
▲유서영⁷⁸
▲윤기승⁸⁰
▲이길오⁷⁷
▲이사행⁴⁵
▲이석주⁶⁰
▲이영인⁷⁸
▲이장숙⁵⁸
▲이준동⁶⁶
▲이현수⁷⁶
▲임영희³⁹
▲장일선⁶²
▲정병철⁸²
▲정인상⁷⁹
▲조강민⁶⁰
▲주대하⁸⁹
▲채영자⁶⁵
▲최병환⁷⁴
▲최충욱⁷⁵
▲한철규⁵⁷
▲현순영⁴⁹
▲황인실⁸⁸
▲황해복⁸³

◇商科大學

▲강원기⁷⁴
▲강종기⁶⁰
▲강창준⁵⁰
▲강태석⁵⁵
▲고상목⁵⁷
▲곽지용⁵³
▲권성우⁶⁹

▲조행숙⁵¹
▲조휴종⁵⁷
▲차현직⁶⁷
▲최동식⁸⁰
▲최연택⁸⁰
▲최형준⁵⁶
▲한운섭⁶²
▲홍성유⁴⁸
▲홍정희⁷²

◇商科大學

▲구본혁⁶⁴
▲권 균⁶⁵
▲김경호⁵⁵
▲김길순⁶⁵
▲김민환⁵⁷
▲김순매⁴⁰
▲김식중⁵¹
▲김영태⁵⁷
▲김인숙⁵⁸
▲김종석⁵⁵
▲김진홍⁶⁴
▲김충희⁶³
▲김학수⁴⁰
▲노병룡⁶⁰
▲민영문⁸¹
▲박감순⁵⁷
▲박성수⁷¹
▲박정남⁵⁷
▲박찬세⁵³
▲배도식⁶¹
▲백남춘⁵²
▲변창혁⁶⁹
▲성송길⁶⁷
▲손병효⁵⁸
▲손용규⁵⁶
▲신광균⁶⁵
▲신준국⁷⁷
▲안경화⁹²
▲안역수⁶⁵
▲양태영⁴⁴
▲유서영⁷⁸
▲윤기승⁸⁰
▲이길오⁷⁷
▲이사행⁴⁵
▲이석주⁶⁰
▲이영인⁷⁸
▲이장숙⁵⁸
▲이준동⁶⁶
▲이현수⁷⁶
▲임영희³⁹
▲장일선⁶²
▲정병철⁸²
▲정인상⁷⁹
▲조강민⁶⁰
▲주대하⁸⁹
▲채영자⁶⁵
▲최병환⁷⁴
▲최충욱⁷⁵
▲한철규⁵⁷
▲현순영⁴⁹
▲황인실⁸⁸
▲황해복⁸³

◇商科大學

▲강원기⁷⁴
▲강종기⁶⁰
▲강창준⁵⁰
▲강태석⁵⁵
▲고상목⁵⁷
▲곽지용⁵³
▲권성우⁶⁹

▲김남완⁶⁵
▲김사홍⁶²
▲김종민⁶⁹
▲김환식⁷²
▲노창승⁶⁵
▲문진석⁶¹
▲박문식⁶⁶
▲박영대⁶⁰
▲박윤석⁶¹
▲박항천⁶⁵
▲박홍서⁵³
▲백기환⁵⁷
▲서광옥⁵⁷
▲손내선⁶¹
▲손홍규⁵⁵
▲송성권⁵⁴
▲송태명⁷⁵
▲신범식⁵⁶
▲안국신⁶⁹
▲양희문⁵⁵
▲우홍식⁵¹
▲유돈규⁶⁵
▲윤복현⁶⁵
▲이경태⁷⁰
▲이기석⁶⁶
▲이동훈⁵⁹
▲이련기⁶⁵
▲이상근⁶⁴
▲이수정⁵⁸
▲이연택⁶⁴
▲이인용⁵⁶
▲이재원⁵⁹
▲이철주⁶⁵
▲이한호⁶⁰
▲이해수⁶³
▲장무환⁵¹
▲장학진⁵⁷
▲정규영⁷⁰
▲정세진⁵⁷
▲정태식⁵⁶
▲조갑주⁶³
▲조한석⁴⁸
▲채광옥⁶⁹
▲최순원⁵⁰
▲최처락⁵⁸
▲하국환⁵¹
▲한정복⁷⁰
▲홍성환⁶⁶
▲홍준기⁶⁵

◇商科大學

▲구본혁⁶⁴
▲권 균⁶⁵
▲김경호⁵⁵
▲김길순⁶⁵
▲김민환⁵⁷
▲김순매⁴⁰
▲김식중⁵¹
▲김영태⁵⁷
▲김인숙⁵⁸
▲김종석⁵⁵
▲김진홍⁶⁴
▲김충희⁶³
▲김학수⁴⁰
▲노병룡⁶⁰
▲민영문⁸¹
▲박감순⁵⁷
▲박성수⁷¹
▲박정남⁵⁷
▲박찬세⁵³
▲배도식⁶¹
▲백남춘⁵²
▲변창혁⁶⁹
▲성송길⁶⁷
▲손병효⁵⁸
▲손용규⁵⁶
▲신광균⁶⁵
▲신준국⁷⁷
▲안경화⁹²
▲안역수⁶⁵
▲양태영⁴⁴
▲유서영⁷⁸
▲윤기승⁸⁰
▲이길오⁷⁷
▲이사행⁴⁵
▲이석주⁶⁰
▲이영인⁷⁸
▲이장숙⁵⁸
▲이준동⁶⁶
▲이현수⁷⁶
▲임영희³⁹
▲장일선⁶²
▲정병철⁸²
▲정인상⁷⁹
▲조강민⁶⁰
▲주대하⁸⁹
▲채영자⁶⁵
▲최병환⁷⁴
▲최충욱⁷⁵
▲한철규⁵⁷
▲현순영⁴⁹
▲황인실⁸⁸
▲황해복⁸³

◇商科大學

▲강원기⁷⁴
▲강종기⁶⁰
▲강창준⁵⁰
▲강태석⁵⁵
▲고상목⁵⁷
▲곽지용⁵³
▲권성우⁶⁹

▲김병덕⁵⁸
▲김종대⁶⁷
▲김종욱⁷⁰
▲노경진⁵⁹
▲노태영⁶³
▲박노영⁶⁵
▲박복양⁴⁴
▲박용목⁶⁹
▲박정하⁶⁹
▲박해철⁶⁰
▲배창모⁶⁴
▲북한채⁵⁶
▲성백규⁵⁶
▲손섭준⁵⁸
▲송병규⁵⁷
▲송위섭⁶⁷
▲신동은⁶⁵
▲신찬수⁶¹
▲양해성⁷²
▲염경균⁵⁷
▲유 청⁴⁰
▲유병인⁶⁴
▲윤상규⁶¹
▲이광호⁶⁵
▲이기호⁷⁰
▲이두한⁵⁶
▲이상규³⁰
▲이상훈⁷⁴
▲이시조⁶⁵
▲이우재⁷⁶
▲이재등⁶¹
▲이정상⁶⁵
▲이태호⁴²
▲이항재⁶²
▲이흥준⁵²
▲장승우⁷⁰
▲전수신⁶⁹
▲정상용⁶⁸
▲정조흥⁶⁵
▲정해인⁶¹
▲조일현⁵²
▲진성주⁶⁴
▲채부영⁷¹
▲최익재⁷²
▲최행주⁷⁰
▲한영국⁶⁴
▲현해수⁶³
▲홍순대⁶⁰
▲황 훈⁷²

◇商科大學

▲구본혁⁶⁴
▲권 균⁶⁵
▲김경호⁵⁵
▲김길순⁶⁵
▲김민환⁵⁷
▲김순매⁴⁰
▲김식중⁵¹
▲김영태⁵⁷
▲김인숙⁵⁸
▲김종석⁵⁵
▲김진홍⁶⁴
▲김충희⁶³
▲김학수⁴⁰
▲노병룡⁶⁰
▲민영문⁸¹
▲박감순⁵⁷
▲박성수⁷¹
▲박정남⁵⁷
▲박찬세⁵³
▲배도식⁶¹
▲백남춘

▲송문정94
▲신호균58
▲안구원58
▲원현숙57
▲유성열79
▲이 윤72
▲이규환56
▲이승길45
▲이종성68
▲이필영56
▲임종래91
▲장정자58
▲정경훈78
▲정인명53
▲조규형49
▲조용훈88
▲채영주56
▲편승범55
▲한창식58
▲현영우71
▲홍순영52

◇音樂大學

▲강지윤88
▲김새별71
▲김운숙60
▲김현중62
▲문록선79
▲서한범69
▲윤혜경88
▲이성만51
▲이오규79
▲이한돈73
▲임은정87
▲전미영78
▲정은숙74
▲조문자66
▲최수연89
▲한정혜87

◇醫科大學

▲강성섭76
▲권영소50
▲김기곤57
▲김동집58
▲김봉석89
▲김상은83
▲김영진42
▲김용태83
▲김정진47
▲김충은59
▲남상륜79
▲박동립56
▲박성원46
▲박용삼82
▲박윤근91
▲박재덕41
▲박희백57
▲변창세78
▲송계용73
▲신기철75
▲신하규31
▲심정연89
▲안상태76
▲위성호88
▲유영상79
▲유장희68
▲윤용구72
▲이경환86
▲이규범56
▲이남수50
▲이상일65
▲이승철75

▲신찬영91
▲심우원76
▲안승호71
▲유성렬55
▲윤혜숙66
▲이경식56
▲이민환66
▲이창훈88
▲임경민95
▲장성기84
▲전준호94
▲정유자73
▲정환수55
▲조병태67
▲진영원95
▲최진선55
▲한승명73
▲허경화78
▲홍성선77
▲홍승철57

◇齒科大學

▲강신영73
▲구연우58
▲김영재69
▲김정범66
▲동방진84
▲박용규59
▲박은기79
▲박종수66
▲백기석70
▲손효현76
▲송연희91
▲신덕재75
▲신문창87
▲양규호70
▲오명희80
▲오혜은82
▲유주하85
▲이광건79
▲이기수70
▲이병운57
▲이석형62
▲이영달59
▲이의웅65
▲이춘근60
▲임성삼62
▲정명선49
▲정용호71
▲채한승88
▲최봉섭57
▲하태성87
▲한상욱64

◇大學院

▲김기섭78
▲박채용83
▲변정환85
▲안호준87
▲이석륜56
▲전진표88
▲조찬성75
▲한정현81

◇經營大學院

▲김길영73
▲박원봉68
▲유태현75
▲최규담93

◇教育大學院

▲박광희66

◇保健大學院

▲김성진69

◇司法大學院

▲지홍원63

◇新聞大學院

▲이영재58
▲이종복85
▲이희자55
▲임현명60
▲장순목63
▲정경해88
▲정요한57
▲정호창74
▲조성수76
▲주권량76
▲차인준77
▲최형석56
▲홍성훈70

▲곽현희74

▲김명기76

▲김운만80

▲노지섭49

▲박동일83

▲박용화62

▲박인옥89

▲배효택81

▲백박삼69

▲송병욱65

▲송정보67

▲신명철82

▲신명혁69

▲양춘모81

▲오중우72

▲유정숙88

▲유지은58

▲이규철62

▲이기택69

▲이병훈79

▲이선형62

▲이원철69

▲이주봉59

▲이해철61

▲장병천74

▲정옥균51

▲조기성74

▲최기재64

▲최인성76

▲한병소69

▲허준구72

▲민경식79

▲백승훈95

▲안영섭76

▲이 준77

▲전성환55

▲조남국61

▲최광수60

▲김영무68

▲안병태73

▲이성권68

▲김언호78
▲정영애73
▲현승일74

◇行政大學院

▲강윤원77
▲김승정68

◇環境大學院

▲김배원93
▲김우현87
▲김창익87
▲목정훈95
▲이필수77
▲한희동86

◇최고경영자과정

▲강원채1
▲곽순철32
▲김광영25
▲김봉규20
▲김선동28
▲김성호32
▲김시학40
▲김옥자36
▲김용집41
▲김재준16
▲김중국9
▲김필수25
▲민태구18
▲박순일13
▲박용훈34
▲박재승40
▲박희택6
▲성백진36
▲손성택39
▲송철호37
▲양성욱1
▲유도재1
▲유한섭23

▲유종수73
▲최영일75

▲김경만70
▲정세욱62

▲김우진65
▲김종미89
▲김한수87
▲안경진75
▲정우철93

▲고순복24
▲권정운91
▲김길현24
▲김석희32
▲김성복23
▲김성환37
▲김영철12
▲김용배32
▲김인규6
▲김정재28
▲김철환5
▲문성주40
▲박달용4
▲박엽래35
▲박은숙41
▲박준수38
▲서승원32
▲손병문28
▲송장식34
▲심현영27
▲원동혁16
▲유삼남24
▲윤국현6

▲이동국33
▲이민의33
▲이영숙13
▲이용무7
▲이재달37
▲이흥근41
▲장영근14
▲전창열39
▲정완섭2
▲진성섭10
▲채수삼39
▲한유동15
▲황경노11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석대15
▲김덕초17
▲김수영12
▲김인준17
▲김종섭17
▲김후곤17
▲박형주17
▲신강열9
▲신용교15
▲유은목6
▲유태로2
▲이경신12
▲이중기5
▲장병준17
▲정상태11
▲정운길9
▲채수익15
▲최순범12
▲한문식14

◇국가정책과정

▲강경철43
▲강숙자32
▲권영해15
▲권혁창34
▲김명규39

▲이동준29
▲이석명12
▲이용덕38
▲이은식27
▲이종학13
▲이훈동2
▲장주상29
▲정선호9
▲정호철27
▲창성목23
▲태석배3
▲홍완기27

▲고상언11
▲김석준11
▲김용길17
▲김장근15
▲김춘식6
▲박충현7
▲백운화6
▲신동철17
▲심종덕15
▲유춘종14
▲윤소원12
▲이정구1
▲이효진15
▲전재홍17
▲정승일9
▲정원용15
▲최배진15
▲하광운17
▲황보창17

▲강경보20
▲권영진42
▲권정신2
▲김동일42
▲김부근31

▲김성호26
▲김용수14
▲김종달1
▲김좌일43
▲김태환38
▲김형우35
▲노홍준29
▲민경자43
▲박상규42
▲박상호1
▲박신광40
▲박정구38
▲서광선11
▲선영제39
▲신재기18
▲오성균18
▲오정근43
▲윤석용43
▲이기조27
▲이남영17
▲이보우35
▲이영화11
▲조옥식16
▲진국홍19
▲최종문22
▲최홍준4
▲허성두23
▲황철준43

◇고급금융과정

▲김광호9
▲도명순8
▲박종한8
▲송형진1
▲윤흥기10
▲이판철3
▲임재용5
▲최상재1

▲김시원44
▲김정규33
▲김종승26
▲김태완44
▲김형성42
▲김홍구43
▲문상호23
▲민태구20
▲박상하28
▲박상철24
▲박용태20
▲박준병9
▲서정만18
▲손경희15
▲신재욱21
▲오세득32
▲유재우36
▲윤용인21
▲이길범24
▲이병정25
▲이양호18
▲정병호41
▲조용안29
▲최승열18
▲최창현25
▲허 전42
▲황재성38

월계 = 56,750,000
누계 = 509,068,536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10월 1일 ~ 10월 31일〉

본회가 94년 7월 국민신용카드사와 제휴카드 조인식을 가진후 9월부터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을 대상으로 발급해온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는 현재(97년 9월 31일)까지 총 1만3천1백39좌에 달합니다.

동문 여러분이 발급받아 사용한 결실로 국민카드사로부터 장학기금으로 95년(94년 사용분) 1백62만2천1백65원, 96년(95년 사용분) 6천8백82만6천원, 97년(96년 사용분) 8천8백40만4천9백98원의 기부금(총 1억5천8백85만3천1백63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동문 여러분이 사용하는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는 동창회 활성화는 물론 모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문 및 가족,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개 인

◇家政大學

▲한영숙60

◇工科大學

▲김동건69
▲이석조55

◇農科大學

▲왕병하88

◇法科大學

▲김용환76

◇師範大學

▲강병주60
▲김하준77

◇商科大學

▲이영근78

◇藥學大學

▲윤용근86

◇齒科大學

▲강선기79

◇大學院

▲안영섭76

▲민은홍62

◇藥學大學

▲이동석95

◇齒科大學

▲김명철50

◇大學院

▲안현진73

▲임현일73